

2021년도 광주시민대학 민주시민교육

# 역사로 만나는 정의로운 광주정신과 민주 시민의식

---

2021년 5월 21일 ~ 6월 18일

매 주 화 요 일 , 금 요 일

---

□ 주최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 후원 : 광주광역시



## ■ 프로그램

구분	일시	주제	강사진
특강	5.21(금) 15:00	역사 속에서 형성된 남도인의 정체성, 정의로움	노 성 태 (남도역사연구원장)
답사	5.25(화) 14:00	광주의 임진·한말 의병을 찾아서	황 행 자 (남도역사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야기 나눔	5.28(금) 15:00		
답사	6.1(화) 14:00	광주와 일제하 항일 독립운동	김 성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상임고문)
이야기 나눔	6.4(금) 15:00		
답사	6.8(화) 14:00	광주와 반독재 민주화운동	노 영 기 (조선대학교 교수)
이야기 나눔	6.11(금) 15:00		
특강	6.15(화) 15:00	호남정신과 호남의 전통문화	천 득 엽 (한국학호남진흥원장)
워크숍	6.18(금) 15:00	롤링페이퍼, 모임구성 등	김 은 하 (소셜디자이너그룹 BOME 대표)

## ■ 목 차

---

1. 특 강1	역사 속에서 형성된 남도인의 정체성, 정의로움 -----	05
2. 제1강좌	광주의 임진·한말 의병을 찾아서 -----	13
3. 제2강좌	광주와 일제하 항일 독립운동 -----	27
4. 제3강좌	광주와 반독재 민주화운동 -----	57
5. 특 강2	호남정신과 호남의 전통문화 -----	73

---



특강1

**역사 속에서 형성된  
남도인의 정체성, 정의로움**

노 성 태

(남도역사연구원장)

## 역사 속에서 형성된 남도인의 정체성, 정의로움

### 광주·전남은 시대정신의 실천지

역사 속에서 축적된 남도인만의 정체성, 문화적 특성 혹은 기질은 무엇일까? 남도인들의 정체성과 기질을 ‘남도다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의로움’과 ‘당당함’이 아닐까 싶다. 남도인들의 DNA가 된 정의로움과 당당함은 가슴속에서만 머물지 않고 발로 뛰어 실천으로 옮겨졌는데, 뜨거운 실천성도 남도다움이라고 생각된다. 정의로움과 당당함이 역사 속에서 축적된 남도다움이라고 한다면, 남도다움이 있게 한 역사적 실체는 무엇인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려 한다.

역사 속에서 축적된 정의로움의 출발은 언제부터일까? 정확하게 언제부터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광주광역시 서구 절골 출신인 박상(朴祥, 1474~1530)의 신비복위소(愼妃復位疏)를 드는 분이 많다. 1515년 8월, 당시 담양부사였던 박상은 폐위된 중종비 신씨를 복위시켜야 한다는 상소를 올린다. 폐비 신씨는 연산군의 처남이며 중종의 장인으로 좌의정을 지낸 신수근의 딸인데, 신수근은 1506년의 중종반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여 박원종 등에게 죽임을 당한다. 반정공신들은 신수근의 딸이 왕비가 되면 자신들이 해를 당할 것을 걱정하여 신씨를 7일 만에 폐위시키고, 숙의 윤씨를 새 왕비로 맞아들이게 한다. 이가 장경왕후다. 그런데 1515년 3월, 장경왕후 윤비가 인종을 낳은 후 엿새 만에 죽자, 박상은 새 중전을 뽑지 말고 10년 전에 쫓겨 간 신비를 복위시켜야 한다는 신비복위소를 올렸고, 조강지처를 폐위시킨 반정공신 박원종 등의 행위는 의리를 저버린 일이므로 마땅히 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광조 등이 적극 옹호하여 죽음은 면했지만 귀양은 피할 수 없었다. 박상의 신비복위소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정의로움의 실천이었다.

광주·전남은 임진왜란 당시 국난을 극복한 최대 항일의 땅이었다. 김천일·고경명·김덕령·박광옥·최경회 등 의병장이 거병하였고, 남도는 군량미 40% 이상을 감당했다.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3대첩의 숨은 영웅들이 전부 남도인이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이끈 한산대첩은 전라좌수영의 수군이 핵심이었는데, 지금의 행정구역인 광양, 여수, 순천, 고흥, 보성 출신의 수군이 그들이었다. 특히 고흥 수군이 다수를 차지했다.

권율의 행주대첩은 전라도 관군이 중심이었다. 임진왜란 당시 광주목사였던 권율은 광주의 관군과 의병을 이끌고 이치(梨峙)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고, 그 전공으로 전라도관찰사 겸 순찰사가 되었다. 그리고 전라도 관군을

이끌고 대첩을 거둔 곳이 행주였다. 장성 출신의 변이중이 만든 화차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보성 출신의 선봉장 선거이의 활약도 대단했다.

1593년의 제2차 진주성 전투는 관군과 경상도의병장 곽재우마저도 외면한 싸움이었다. 이때 진주성을 지켰던 것은 화순의 최경회, 광주의 고종후, 나주의 김천일 등 광주·전남의 의병이었다. 이처럼 임진왜란 3대첩의 중심에 광주·전남인이 있었다.

이순신은 죽친인 현덕승에게 보낸 편지에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라 쓴다. “만약 호남이 없다면 국가가 없을 것이다”라는 뜻의 ‘약무호남 시무국가’는, 호남이 매우 중요하니 지켜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해석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임진왜란 3대첩의 영웅들이 전라도 관군과 수군, 의병들이었으며, 농민들은 군량미 40%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순신의 전라좌수영 수군들은 서남해안의 해로를 차단, 왜군의 보급로를 끊어버렸다. 함경도까지 진출한 왜군이 남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다.

남도다움을 규정하는 정의로움과 당당함, 이는 한말 광주·전남이 최대의 병항쟁지였음과 관련이 깊다. 1908년 광주 어등산은 김태원·김율·조경환 의병장을 비록, 50여명이 일군과 치열한 접전 끝에 순국한 장소다.

1909년의 경우 전국 의병 전투횟수의 47.2%, 참여 의병수의 60.0%가 호남에서 일어난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특히 전라도 의병이 가장 활발했다”라고 서술하고 있고, ‘의병부대의 활동’이라는 지도에 전라도는 온통 노랗게 색칠되어 있다. 어디든 의병의 활동 장소라는 것이다. 그래서 1909년 9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두 달여에 걸쳐 일제가 펼친 전라도 의병 섬멸 작전이 ‘남한 폭도 대토벌 작전’이었다.

일제의 무단통치하에서도 광주인들은 한 치의 물러섬이 없었다. 1919년 3월 10일 작은 장날을 기해 광주교 밑 큰 장터에서 시작된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은 작은장과 서문통, 본정통(총장로)을 지나 광주경찰서까지, 광주를 진동시켰다. 당시 만여 명이었던 광주 시민 중 천여 명이상이 참여하였고, 104명이 옥고를 치렀다. 전남도 화순·장성·함평·영암 등 어디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었다.

10년 후인 1929년 11월 3일 일어난 광주학생항일운동은 광주고보·여고보·농업학교·사범학교 학생 등 남도의 학생들이 또 횃불을 올렸다. 이듬해 3월까지 5개월여 동안 전국 320여 학교, 54,000여 명 이상이 참여한 광주학생항일운동은 3·1운동 이후 최대 항일운동이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8년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에 대한 전국 시(군)·읍·면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독립운동 관련 수형자(受刑者) 5,323명을 확인

했다. 독립운동 관련 수형자 5,323명은 보안법·소요·대정8년 제령7호·치안유지법 등을 위반한 자를 통계 낸 수치다. 일제가 제정한 보안법·소요·대정8년 제령7호·치안유지법은 독립운동자들을 때려잡았던 악법임을 두말할 필요치 않는다. 이 중 다소 낯선 ‘대정 8년 제령7호’란 ‘3·1 만세운동’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일본이 한 달 보름 만인 4월 15일 독립운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령으로, 기존의 보안법보다 5배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악법 중의 악법이었다.

그런데 보훈처가 발표한 5,323명 중 광주·전남 출신의 인물이 1,985명으로 가장 많다. 참고로 타 시도를 보면 대전·충남이 1,205명, 인천·경기가 456명, 대구·경북이 404명, 제주 214명, 부산·경남이 198명이었다. 광주·전남의 1,985명은 전체 독립운동으로 감옥살이를 한 전체 인원의 37.3%를 차지한다. 광주·전남을 독립운동의 보고(寶庫)라고 부르는 이유다. 1906년 을사오적이었던 이근택을 칼로 찌른 기산도, 을사오적 암살단을 조직한 나철 등 의열투쟁의 선봉에 선 분들도 다 남도인이다.

## 한국 민주주의의 성지, 금남로

광주는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 당시 경찰이 발표한 3곳 중 한 곳이다. 학생들이 앞장 선 4·19혁명의 출발은 제4대 정·부통령을 선출한 3·15 부정선거였다.

1960년 3·15 정·부통령 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지자 전국 최초의 부정선거 규탄시위가 광주 금남로에서 일어났다. 12시 45분에 시작된 규탄시위는 ‘곡(哭) 민주주의’라는 플래카드를 들었기 때문에 ‘장송(葬送) 시위’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마산에서 일어난 15시 30분의 1차 시위 및 경찰의 발포가 이루어진 19시의 2차 시위보다 빨랐다. 천여 명의 시민이 합세한 광주의 3·15 민주주의 장송 시위는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선거 무효를 선언한 전국 최초의 시위였고, 당시 개머리판에 맞아 금남로에 흘린 민주당원 조계현의 피는 4·19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광주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 오전 10시경에 광주고등학생들이 교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시위에는 광주고를 비롯하여 광주공고, 광주농고, 광주상고, 광주여고, 송일고, 조대부고 등이 학교별 시위대를 형성하여 시내로 진출하였으며 광주일고, 살레시오고, 수피아여고, 광주사범학교 학생들도 개인적으로 시위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오후 2시경 고등학생이 중심이 된 시위대 2천여 명이 집결하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던 곳 또한 아시아문화전당(옛 전남도청) 앞 금남로 일대였다.

이때 학생들은 ‘연행한 학생들을 즉시 석방하여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인



도하라’, ‘부정선거 다시 하라’, ‘평화적인 데모를 방해하지 말라’, ‘광주 학생 만세’ 등의 구호를 외쳤다. 오후 5시를 넘기면서 비상계엄이 확대되자 경찰의 진압도 강경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시위대도 시민들이 다수 합류하면서 전 국민적 투쟁의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밤 9시 30분경 광주경찰서(현 동부경찰서) 앞에서 시위대와 대치 중이던 경찰이 발포하였고, 시위대가 금남로 충장로 일대로 흩어지자 경찰이 추격하면서 발포하여 고종석 등 6명이 금남로·충장로 일대에서 사망하였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시대는 끝났지만 민주주의 봄은 오직 않았다.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12·12쿠데타로 군권을 장악한 이후 권력마저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에 맞선 세력은 대학생들이었다. 1980년 3월 전국의 대학은 학생회를 정비한 후 군부 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광장에는 10만여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 신군부를 성토했다. 광주에서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박관현의 주도하에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민족 민주화 성회’가 열렸다. 1980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렸던 민족 민주화 성회의 장소도 옛 도청 앞 분수대 광장이었다.

5·18민주화운동의 직접적인 발단은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였다. 비상계엄으로 대학에는 휴교령이 내려지고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등에는 계엄군이 진주했다. 휴교령에도 불구하고 5월 18일,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 모인 수백 명의 대학생과 계엄군 사이에 일어난 최초의 물리적 충돌이 과격화되면서 광주 전역에서 유혈 충돌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그 중심지는 늘 금남로였고 옛 도청 앞 분수대 광장이었다.

5월 18일, 가톨릭센터 앞 금남로에서 최초의 학생 시위가 있었으며, 5월 19일부터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력에 맞서 수많은 시민들이 계엄군에 격렬하게 대항하였다. 계엄군으로 투입된 공수부대원은 3~4명씩 조를 편성하여 시위 현장 주변 건물을 샅샅이 뒤져 젊은 사람이 발견되면 무조건 두들겨 팬 뒤 잡아갔다. 붙잡힌 사람들은 팬티만 남기고 발가벗겨진 채 군용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고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살육을 백주대로에서 자행했다. 이러한 만행을 벌였던 공수부대의 진압 작전 명령이 바로 영화로도 제작된 ‘화려한 휴가’였다.

20일 저녁 광주역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하자, 21일 오전부터 금남로에는 수만의 시민들로 가득 찼고 공수부대원들은 13시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하였다. 발포 결과 50여 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 현장도 금남로였다.

금남로 주변 건물들도 한국 민주주의의 증언자다. 21일 계엄군이 일시 외

곽으로 퇴각한 후 옛 도청은 시민수습대책위원회의 본부가 되었고, 27일에는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등이 최후를 맞이한 항쟁 장소였다. 옛 도청 옆 상무관은 5·18 당시 계엄군의 총에 숨진 분들의 시신 보관 장소였으며, 245빌딩(옛 전남일보 건물)은 계엄군이 쓴 총알의 탄흔이 오늘 그대로 남아 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독재 타도’, ‘직선제 개헌’ 등의 함성으로 가득 찬 곳 또한 금남로였다. 전두환의 4·13 호헌 조치로 인해 얼어붙은 정적을 깨뜨린 사람들도 금남로의 신부들이었다. 4월 21일, 천주교 광주대교구 소속 남재희 신부 등 사제 12명이 ‘직선제 개헌을 위한 단식기도를 드리면서’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금남로 5·18기록관 (당시 가톨릭센터) 6층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이에 지지 성명과 동조 단식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면서 호헌 철폐 운동이 전국화되었고, 이후 6월 항쟁의 불씨로 타올랐다. 6월 26일 ‘민주평화대행진’ 당시 금남로 시위에 참가한 시민은 20만을 훌쩍 넘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 이후 최대 규모였다.

2016년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비판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금남로는 늘 5만여 시민이 함께했다. 이는 인구 대비 전국 최대 참여 숫자다.

한편, 금남로는 민주열사들의 노제가 치러지는 현장이기도 했다. 6월 항쟁의 불씨가 된 광주 진흥고 출신인 이한열의 노제에는 30만 명이 운집했다. 이철규(조선대) 열사, 강경대(명지대) 열사, 박승희(전남대) 열사, 김철수(보성고) 열사와 최근 경찰이 쓴 물대포로 사망한 백남기 어르신의 노제도 이곳 금남로에서 치러졌다.

이한열(1966~1987) 열사는 전남 화순 출생으로 광주 진흥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당시 동아리 ‘만화사랑’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반독재투쟁에 가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6월 9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개최하기로 한 ‘박종철군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쟁취 국민대회’를 하루 앞두고 열린 ‘6·10 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에서 전경이 쓴 최루탄을 맞고 사망하였다. 그의 죽음은 6월 항쟁과 6·29 선언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철규(1964~1989) 열사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조선대학교에 재학 중 민주화운동에 투신한다. 조선대학교 교지인 「민주조선」의 편집장을 맡아 활동 중 경찰의 수배 중 행방불명되었고, 일주일 뒤에 무등산 제4수원지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경찰이 체포 후 고문해서 죽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강경대(1972~1991) 열사는 서울 출생으로 1991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한 후 민중가요패 ‘땅의 사람들’에 가입해 활동했다. 1991년 4월 시위

도중 백골단이라 불리는 사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붙잡혀 쇠 파이프로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후 숨진다.

박승희(1971~1991) 열사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남대학교에 진학한 후 교지 「용봉」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 1991년 4월 29일 전남대에서 ‘고 강경대 열사 추모 및 노태우 정권 퇴진 결의대회’ 중 분신하였다.

김철수(1973~1991) 열사는 전남 보성 출신으로 보성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1991년 5월 항쟁 11주년 기념일을 맞아 보성고 학생회 주최로 열린 5·18 기념행사를 치루던 도중 “참교육 실현”, “노태우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하였다.

이한열, 이철규, 강경대, 김승희, 김철수 등 수 많은 민주 열사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면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다 맞아 숨졌고, 온몸을 불태워 분신했다. 민주 열사들의 마지막 가는 혼을 달래주는 노제가 금남로 옛 도청 앞에 열렸고, 그리고 열사들의 마지막 안식처는 민족민주열사묘역(5·18 옛묘역)이었다.

광주가, 광주 금남로가 ‘한국 민주주의를 꽃피운 현장’, 즉 ‘한국 민주주의의 성지’라 불리는 이유다.

## □ 참고문헌

- 『호남 4·19 30년사』 (호남 4·19 30년사편찬위원회, 1995)  
『광주역사』 (광주광역시사편찬위원회, 1998)  
노성태, 『남도의 기억을 걷다』, 살림터, 2012  
노성태, 『광주의 기억을 걷다』, 살림터, 2014  
안종철, 『5·18때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고, 아시아문화커뮤니티, 2016)  
『5·18, 위대한 유산/연대』 (5·18기념재단, 2017)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창비, 2017)  
『5·18민주화운동』 (5·18민주화운동기록관, 2017)  
『왜곡과 진실 5·18』 (광주광역시, 2018)  
『오월 그날의 현장』 (5·18민주화운동기록관, 2018)  
노성태, 『노성태, 역사의 길을 걷다』, 살림터, 2020



## 제1강좌

# 광주의 임진·한말 의병을 찾아서

황 행 자

(남도역사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광주의 임진·한말 의병을 찾아서

남도역사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황행자

## 차 례

1. 광주 정신과 호남 의병
2. 임진왜란과 우리지역 의병활동 / 고경명, 박광옥, 김세근
3. 한말 일제 침략과 우리지역 의병활동 / 양진여와 양상기, 김태원과 김율

## 1. 광주 정신과 호남 의병

우리 고장 빛고을 광주를 나타내는 말로 미향味鄉, 예향藝鄉, 의향義鄉이 있다. 맛의 고장, 예술의 고장, 그리고 의로움의 고장이라는 말이다. 이 중에서도 우리 고장 사람들은 충절과 정의가 넘쳐 흐르는 의향으로서의 자부심이 크다. 기후가 온화하고 비옥한 들판과 아름다운 산수를 갖춘 천혜의 땅에서 살아온 이 고장 사람들은 인정 많고 열린 품성으로 떳떳하고 의연한 삶을 누려 왔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자 하지만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 고장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부닥칠 때는 분연히 일어나 목숨을 바쳐 국가를 지켜냈고, 위정자와 탐관오리들에 의해 불의가 횡행할 때는 용감하게 맞서 싸워 정의로움을 지켜냈다.

왜란과 호란 때 이 나라를 지켜냈고,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일으켜 외세를 배척하고 자주적인 국민 국가를 만들어보고자 했으며, 한말에는 일제 침략에 저항하는 의병 활동을 벌였고 일제 강점기에는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 바쳤으며 해방 후 분단과 독재에는 언제나 앞장서서 저항하였으니, 우리의 선조들은 나라 사랑과 정의를 몸소 실천한 의로운 사람들이었다.

우리 고장이 배출한 의로운 분들은 얼마나 많을까? 셀 수없이 많은 분이 계시지만 이 글로 임진왜란과 한말 의병장들의 흔적을 찾아 정리하고, 관

런 현장을 탐방하고자 한다. 현장의 동선을 고려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 지역의 박광옥, 김세근, 양진여와 양상기, 고경명, 김태원 의병장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해보겠다.

## 2. 임진왜란과 우리 지역 의병 활동

### 1) 개요

1592년(선조 25년) 4월 13일 오후에 일본 침략선이 부산 앞바다에 나타났고, 14일에는 고니시 유키나가 이끄는 선발대 18,000명의 병력이 부산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다음 날에는 동래부사 송상현과 양산군수 조영규가 굳게 지키고 있던 동래성이 함락되어 두 사람은 장병들과 함께 순국하였다. 그런데 송상현<sup>1)</sup>과 조영규<sup>2)</sup>는 모두 호남인으로 그들은 왜적에 맞서 장렬하게 전사함으로써 호남인의 충절을 과시했다.

동래성을 짓밟은 왜군은 양산·밀양을 거쳐 대구를 짓밟았고, 제2진 가토 기요마사의 22,000명, 제3진의 구로다 나가마사의 11,000명이 뒤를 따랐다. 그리고 계속하여 후진이 상륙하여 왜병의 총수는 수군 9,000명을 합하여 약 20만에 이르렀다.

왜군은 세 길로 나누어 진격하며 충주에서 신립 부대를 격파하고, 경기도로 진격하여 부산에 상륙한 지 20일 만에 서울을 함락했고, 그로부터 40일 만에 평양을 함락하였다. 선조는 의주로 파천했고 왕자들은 피난 겸 모병을 위해 임해군은 함경도, 수화군은 강원도에 들렀으며, 각지의 의병과 명예 원군을 요청했다. 서울에 입성한 왜군은 서울을 지키는 부대를 두고 작전에 따라 진로를 정했으며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으로 진군하여 후방지역을 확보하려 했다.

서울이 점령되고 평양이 함락되었으며, 왜군이 함경도까지 진출하였지만, 관군은 싸움다운 싸움도 못 하고 도망치거나 무너져 버렸으니 이 나라를 지탱할 힘은 의병과 수군밖에 없었다. 경상도와 충청도는 왜군의 서울 진격 통로였기 때문에 거의 유린당하였지만, 우리 고장은 왜군의 북상로가 아니었으며 이순신 휘하의 수군이 연전연승하여 안전하게 보전될 수 있었다.

전라도 의병은 국가사직을 구하러 서울로 북상하다가 충청도의 조헌 의병과 함께 금산에서 싸웠으며, 경상도로 내려오는 왜군을 막아 진주성을 지키는 눈부신 활동을 하였다. 그런가 하면, 이순신 휘하의 전라도 좌수영

---

1) 송상현의 호는 천곡이요 본관은 여산으로 정읍 출신이다.

2) 조영규는 본관이 직산이며 장성 출신이다.

수군과 이억기 휘하의 우수영 수군은 바다를 완전히 장악하여 왜군의 후속 부대를 차단했으며 군수물자의 지원을 중단시켜 평양까지 점령한 왜군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이순신·이억기 휘하의 수군과 권율 휘하의 육군이 각지에서 승전하여 왜군의 공세를 위축시키는 한편, 패배의식에 젖어있는 관군의 사기를 북돋웠다. 그리고 전라도 농토를 경작하여 군량미와 식량을 공급하여 국가 재생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특히 전세 만회의 전기가 되었던 권율의 행주싸움도 바로 호남인이 거둔 승리였다. 임진왜란 일어날 때 광주 목사였던 권율은 전라도 순찰사가 되어 호남의 병사 만여 명을 인솔하여 서울로 향하던 중, 왜군이 충청도에서 금산으로 진격하여 전라도를 공략하려 함을 알고 금산의 이치에서 동북 현감 황진<sup>3)</sup>과 더불어 왜군을 막았다. 권율은 서울 수복을 위해 전라도 군사 만여 명을 행주산성에 집결시키고 대비하여 3만여 명의 왜군을 맞아 싸웠다. 적은 종일 9차례의 공격을 퍼부었으나 아군은 필사적인 항전으로 이길 수 있었다. 이 싸움으로 왜적은 서울에서 철수했으며 전세는 역전되었고 권율은 도원수가 되어 왜적 토벌의 총사령관이 되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주역은 호남인이었으니, 그것은 권율 휘하여 만여 명의 병사가 모두 전라도 군사였고, 그를 엄호했던 황진, 선거이도 전라도 출신이며 왜적을 무찌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신무기인 화차는 장성사람 변이중이 발명한 것이다. 그리고 관군과 함께 용감하게 싸운 승병은 처영이 인솔한 해남 대흥사의 승병이었다.

## 2) 제봉 고경명

고경명(高敬命 1533~1592)은 호가 제봉이요 본관은 장흥이며 지금의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에서 태어났다. 명종 7년의 사마양시에 합격했는데 진사시에서 장원을 했으며 명종 13년에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성균관 전적을 비롯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했으며 명종 17년에는 별시의 고관이 되어 정철을 장원으로 뽑았고, 영암군수, 순창군수, 동래부사를 거쳤다. 동래부사 재임 중, 간관들이 정철을 배척하면서 송강을 선발한 제봉까지 배척하여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 해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바로 전해였다.

왜란이 일어나자 전라감사 이광에게 빨리 군대를 일으켜 왜적을 막으라고 충고했으며 회재 박광옥과 더불어 의병봉기를 의논했다. 고경명은 국가의 위기가 커져가던 1592년 5월 29일에 담양 추성관에서 의병봉기를 선언

3) 황진(黃進 1550~1593) 장군은 본관은 장수, 재상 황희의 5대 손. 남원 출신으로 1576년 무과에 급제해 1592년 동북현감 당시 권율 장군과 함께 이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1593년 임진왜란 당시 충청도 병마절도사가 되었다가 진주성 전투에서 실질적인 총지휘관으로 활약하다 순절하였다.



하고 유팽로와 안영, 양대박 등에 의해 의병장에 추대되었다. 그는 늙고 병들었음에도 대장이 되는 것을 사양하지 않았다. 곧이어 추성관에 의병청이 설치되고 총대장 고경명, 좌부장 유팽로, 우부장 양대박, 종사관 안영, 모량유사에 최상중, 양희적, 양사형을 지휘부로 하는 호남 의병이 결성되었다.

6월 11일, 고경명은 담양에서 의병을 거느리고 태인을 거쳐 전주로 가서 남원의 군사를 집합시켰다. 이때 우부장을 맡았던 양대박은 남원의 군사를 증모하여 운암에서 산곡간에 매복하였다가 밀려오는 왜군을 기습하여 1,200여 명을 사살하고 많은 무기를 노획했다. 이들이 금구를 거쳐 전주에 이르렀을 때 임진강을 지키던 군사가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려와 6월 22일 전주의 고경명 부대는 북상하여 여산으로 진영을 옮긴다. 그리고 6월 24일, 각 도의 수령과 백성, 군인들에게 격문을 보낸다. 이것이 바로 말 위에서 쓴 「마상격문」이다. 이 격문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고, 호남의 뜻있는 남아들을 고경명 휘하로 결집시켜 무려 6,000여 명이 넘는 대부대가 되었다.

6월 27일, 고경명 부대는 전주를 지키기 위해 진산으로 진을 옮기던 중 왜군이 금산을 점령하고 호남에 침입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자, 7월 8일 서둘러 금산으로 진격하였다. 고경명은 금산에서 옥천의 조헌 의병장에게 금산을 적을 같이 무찌르자고 연락하여 금산에 집결했다. 관군이 먼저 일본군과 싸웠으나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리고 7월 10일 금산 눈벌(와평)에서 고경명의 6천 의병 부대는 금산성을 지키고 있는 왜적을 몰아내고자 관군과 함께 혈투를 벌였으나 군사력의 열세로 무너지고 말았다. 고경명은 피하라는 부하들의 말에 “전쟁에서 패한 장수로서 죽음이 있을 뿐이다.”라며 끝까지 싸우다 둘째 아들 인후, 유팽로, 안영 등과 함께 순국하였다.

고경명 의병 부대에서 활약하다 희생하신 순국한 우리 고장 사람들을 열거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sup>4)</sup>

▲ 고인후: 고경명의 둘째 아들로 과거에 급제했으나 아버지 충렬공이 많은 반대자들의 기피 인물이기 때문에 벼슬에 나가지 못했다. 왜란이 일어나 아버지가 의병을 일으키자 그 준비와 작전 및 연락을 도맡아 함께 싸우다가 아버지와 함께 금산에서 순국했다. 나라에서는 예조참의를 증직했고 포충사에 배향했으며 의열공이란 시호를 내렸다.

▲ 유팽로: 본관은 문화, 곡성 옥과 출신으로 진사에 문과에 급제하였는데 왜란이 일어나 제봉 고경명이 의병을 일으키자 500명의 피난민과 100명의 집안 하인들을 거느리고 참여하였다. 금산 전투에서 선봉장으로 용감히 싸

4) 호남절의록, 충렬공 고제봉 동순제공사실

우다가 고경명이 위태롭게 되자 구하다가 같이 순국했다. 조정에서 대사간, 좌승지를 증직하고 광주 포충사와 금산 증용사에 배향했다.

▲ 안영: 본관 순흥, 남원 출신으로 고경명이 의병을 일으키자 종사가 되었다. 고경명이 위태롭자 후군장인 그는 제봉을 엄호하다가 같이 순국했다. 나라에서는 좌승지를 증직했고 광주 포충사, 금산 증용사, 남원 정충사에 배향했다.

▲ 김덕홍: 본관 광산, 광주 출신으로 왜란이 일어나 고경명이 의병을 일으키자 동생 덕령과 덕보로 노모를 봉양하게 하고 참여하여 금산에서 순국하였다. 조정에서는 지평을 증직하고 의열사에 배향하게 했다.

▲ 고종후: 고경명의 장남, 1577년(선조 10) 별시 문과에 급제한 뒤 임진왜란 때 금산 전투에 참여했으나, 아버지와 아우를 잃은 뒤 진주성 전투에서 김천일·최경회 등과 함께 순절하였다.

이외에 금산 전투에서 희생된 다수의 의병이 있으나 생략한다. 특히, 몸이 아파 금산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고경명과 함께 의병을 일으키기로 합의하여 군량 조달을 책임졌던 회재 박광옥과 금산 전투에 참여하여 고경명과 함께 순국한 삼봉 김세근은 따로 정리하겠다.

## 포충사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모집하여 금산 전투에서 순절한 고경명 등을 모신 사당이다. 1601년(선조 34)에 호남 유생들이 광주 제봉산 아래에 사당을 건립했고, 1603년에 박지효 등 문인과 후손들이 사액을 청해 ‘포충(褒忠)’이란 액호를 받았다.

고경명을 주벽으로 제향하고 동배위에 고종후와 유팽로, 서배위에 고인후와 안영을 배향하였다 포충사는 사액 사당으로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 때에도 장성의 필암서원과 함께 훼손되지 않았던 사우이다.

1980년에 현재의 사우(신사우)를 정화하였다. 사당은 앞면 3칸으로 맞배집이고, 동재와 서재를 정면 3칸, 옆면 1칸 반의 맞배집이다. 내삼문과 외삼문은 앞면 3칸, 옆면 1칸의 맞배집이다.

## 고씨 삼강문

고씨 삼강문은 포충사에서 2km 근처에 있다. 고경명 일가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정문(旌門)으로 1충(충), 3효(효), 2열(열), 1절(절) 등 7인의 정려가 모셔져 있다. 1충은 고경명, 3효는 그의 장남 고종후, 차남 고인후, 손자 고부금이며, 2열은 그의 딸 영광 유생 노상룡의 처와 그의 질부인 고거후의 처 광산 정씨이다. 두 열녀는 정유재란 때 일본군에게 붙잡히게 되자 자결하여 절개를 지켰다. 1절은 고경명의 동생 고경형이다.

1595년에 고경명, 고경형, 고종후, 고인후가 정려되었으며, 1597년에는 노상룡의 처 고씨, 1655년에는 고부금, 1844년에 고거후의 처 광산 정씨가 각각 정려되었다. 삼강문은 1844년에 세워졌다. 한 집안에 한 명의 정려도 어려운데 7명이 정려가 된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씨 삼강문은 1985년 2월 25일 광주광역시 기념물 제12호로 지정되었다.

### 3) 회재 박광옥

박광옥(朴光玉 1526~1592)은 본관이 음성이고, 자는 경원, 호는 회재懷齋이다.<sup>5)</sup> 박광옥은 성균관의 사예를 역임한 박곤의 아들로 이장동 황산 마을에서 태어나, 뒤에 서창 매월동 회산 마을로 이사하였다. 10세때부터 정황(丁愷)의 문하에서 글을 배웠고, 21세 때 진사가 되었으나, 광주 선도면(나중에 서창면에 편입)에 집을 지어 개산송당蓋山松堂이라 이름하고 문하생들과 함께 성리학을 연구했다.

1560년(명조15)에 광주 목사 유경심을 도와 광주 향교를 중수하고 학헌과 학규를 제정하였다. 선도 향약을 정하여 실시하기도 하였다. 1568년(선조1)에 농사를 짓기 위해 개산 남쪽의 물을 끌어들이 개산 방죽을 막고, 방죽 가운데에 작은 섬을 만들어 그 안에 수월당이란 정자를 짓고 그곳에서 고봉 기대승, 사암 박순, 제봉 고경명, 칠계 김언거 등과 교유하였다.

1568년에 학행으로 천거되어 내시교관에 임명되었다. 1574년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해 종부시 주부가 되었으며, 운봉 현감이 되었을 때 황산대첩<sup>6)</sup>을 세웠고, 운봉 향교를 중수하고 세금 여분 수백 석의 곡물을 내어 유생들에게 공급하고 고을의 자제를 뽑아 날마다 거쳐하며 공부하게 했다. 고을을 떠난 뒤에 운봉 유지들이 선정비를 세워 그 치적을 기념하였고, 황산 서쪽에 용암서원을 건립하여 매년 제향했다.

1578년 전라도·충청도의 도사를 거쳐, 1579년 예조 정랑, 1580년 사헌부 지평이 되었다. 그뒤 성균관 직강을 거쳐 영광군수와 밀양도호부사가 되었는데, 영광과 밀양에 송덕비가 세워졌다. 뒤에 광주·전주의 교수와 사예·사섬시 정·봉상시정 등에 재직하였다. 1589년 정여립 옥사(일명 기축옥사)가 일어나자, 전에 정여립의 관직 진출은 막을 이경중을 탄핵한 죄로 삭탈관직 되었다.

신병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광주에 내려와 있던 1592년(선조25)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고경명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고향 선비 수십인을 거느리고 의병도청義兵都廳을 설치하였다. 선비들을 사방에 나누어 보내어 의병을 불러 모으게 하니 호응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이로 인해 장

5) 4대조인 박계양이 광주에 처음 살기 시작하면서 그 자손이 광주사람이 되었다.

6) 고려말에 이성계가 운봉 인월에서 왜구를 물리쳤던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지금은 일제 강점기에 일제가 깨뜨려 땅에 묻었던 것을 파내어 전시하고 새 비석을 만들어 세웠다.

정, 장비, 양식을 조달하니 의병 세력 확장에 큰 힘이 되었다. 당시 전라감사 이광의 무능을 탄핵했으며, 새로 부임한 권윤을 도와 많은 공을 세웠다. 의병 활동의 공로로 다시 관직에 올라 나주 목사로 재임하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1602년(선조35)에 광주 유림들이 박광옥 선생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벽진사우를 세워 배향하다가 1604년 벽진서원으로 개명했다. 1678년에 김덕령을 합사하여 사액을 받고 의열사로 고쳐졌다. 1868년(고종5)에 대원군의 서원 훼철령으로 의열사가 헐리고, 윤리영당에 영정을 봉안했다. 1999년 풍암지구 개발 사업으로 묘소와 영당이 편입되어 풍암동에 새로운 터를 잡아 묘소를 정화하고 윤리사를 중건하였다. 2018년 6월에 다시 개칭하여 지금은 벽진서원으로 이름하고 있다. 저서로 『회재유집』이 남아있고, 문집 목판은 지방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 4) 삼봉 김세근

김세근(金世斤 1550~1592)은 본관은 김해, 호는 삼봉으로 1550년(명종5) 4월에 출생했다. 김세근에 대해 『광주읍지』에는 “김해인으로 절효공 극일(김일손의 할아버지)의 후예이다. 임진왜란에 주부로서 총렬공 고경명 고경명을 좇아 금산에서 함께 순절하였다.”라고 적혀 있다.

1576년(선조9)에 진사가 되고, 다음 해에 문과에 급제한 후 종6품인 종부시 주부 벼슬을 지내면서 외침에 대비한 양병론(養兵論)을 주장하다가 용납되지않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경남 함안으로 내려왔다. 5대 방조인 김일손이 무오사화 때에 참살당하는 화를 입자, 김일손과 가까운 친척들은 관직에 진출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를 안 김세근도 고향 함안에서 광주 서창 세하동 세동마을로 옮겨왔다.

그 후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장정 수백 명을 이끌고 담양에서 봉기한 추성 회맹에 참가하여 유평로, 김덕흥, 안영 등과 더불어 고경명 의병진에 합세하여 도처에서 많은 전공을 올렸다. 진중에서 병을 얻자 귀향하여 치료 중에 스승인 호서 의병장 조현의 부름을 받고 병든 몸으로 다시 출정하였다. 전주에서 군영을 정돈하던 중 적병이 전라도 진입로인 금산으로 침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금산으로 가서 분전 중에 와평(臥坪: 눈벌)에서 고경명과 같이 순절하였다.

뒤에 선무원종공신으로 녹훈되고 병조 참판에 추증되었다. 그의 사후에 광주 지역의 유림들이 ‘창열단’을 건립하였고, 1958년에는 학산사를 건립하여 매년 음력 3월 22일에 제향하고 있다. 김세근의 부인은 청주 한씨(1551~1592)이다. 한씨는 남편이 금산 전투에서 순절하였다는 비보를 듣고 시동생 수근과 아들 추남을 금산으로 보내 수습하려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초혼招魂으로 선영 아래 장사를 지냈다. 바로 그 다음날 부인 한씨는 ‘부사총夫死忠하고 부사열婦死烈하는 것이 인지본人之本’이라는 유언을 남기고 부군이 싸움터로 떠날 때 준 단검으로 자결하였다. 묘는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불암마을 학산사 입구 우측의 산기슭에 있다.

서창동 관내에 있는 백마산은 높이 100여 미터의 나지막한 산이지만 그 모습이 수려하고 골짜기가 깊다. 백마산 장수골은 김세근 장군에 얽힌 전설이 남아있는 곳이다. 김세근은 양병설을 주장했으나 목살되자 임란 4년 전부터 마을 뒤 백마산 골짜기에 연병장을 만들어 용력있는 장정들을 규합하여 무술을 연마하기에 힘썼으니 차츰 그 소문이 퍼지고 김장군의 애국충정이 널리 알려져서, 나주, 화순, 담양 등지에서까지 수많은 장정이 모여들었다. 지금도 김장군이 장정을 훈련시킨 백마산 골짜기를 ‘수련골’이라 하고, 세동마을에서 절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수련재’라고 부르며 장정들의 숙소와 휴식처로 차일을 쳤다는 ‘차일봉’과 그 당시 사용했던 ‘옥동샘’이라는 우물, 백마산 상봉에 김장군이 기거하면서 심신을 단련했다는 바위굴은 ‘장수굴’이라 부르고 있다.

### 3. 한말 일제 침략과 우리 지역 의병 활동

#### 1) 개요

동학농민혁명을 무력으로 좌절시킨 일본은 청일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조선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려 했다. 러시아의 간섭이 있었으나 일본은 비상수단으로 민비를(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을미개혁을 단행한다. 한말의 1차 의병은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대한 반항에서 시작되었다. 한말 의병의 지도이념은 위정척사사상으로 전통사상인 유학을 옹호하고 외래사상을 배척하는 것이다. 이의 주창자는 노사 기정진과 화서 이항로다.

동학농민혁명의 상처가 채 가시지 않은 호남지방에서도 국난을 좌시할 수 없어 늦게나마 의병이 일어났는데, 장성을 중심으로 한 유생들의 의병과 나주를 중심으로 한 의병으로 나눌 수 있다. 장성의병은 기우만을 중심으로 노사 기정진의 문인들인 기삼연, 고광순 등이 앞장섰다. 이들은 광주로 집결하여 의병 활동을 하려했으나 조정의 해산 권유가 있자 기우만은 의병 해산을 결심했다. 이때 선봉장 기삼연은 반대하였지만, 기우만은 군대를 해산하고 말았다.

1905년 11월 일제 침략자들이 을사조약을 강요해 통감부를 설치하고 보호국으로 만들자 다시 의병이 일어나게 된다. 호남의 2차 의병은 1906년

4월에 면암 최익현과 임병찬이 함께 전라북도 태인에서 봉기하였는데, 이때부터 호남의병은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왜냐하면, 최익현은 위정척사파의 주도자였던 화서 이항로의 수제자이며 일찍이 대원군을 탄핵하여야시켰고, 강화도조약 때에 격렬한 상소활동을 벌여 당시의 유림들로부터 명망과 기대를 한몸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익현은 「창의토적소(倡義討賊疏)」를 올려 의거의 심정을 피력하고 일본 정부에 대한 문죄서 「기일본정부(寄日本政府)」를 발표하였다. 74세의 고령으로 의병을 일으켜 진충보국하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적지 대마도에서 순국하였다. 최익현, 임병찬 등이 주도한 2차 호남 의병은 전투다운 전투를 해보지 못하고 10여 일 만에 끝나고 말았지만, 최익현의 명성과 대마도에서 순국하여 운구되면서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쳐 그 의미가 매우 컸다. 아울러 최익현과 호응하기 위해서 남원의 양한규, 담양의 고광순, 광양의 백낙구가 의병을 일으켰으며, 화순에서 양회일, 이백래 등이 의병을 일으켜 화순·능주·동복을 휩쓸기도 했다.

한말 3차 의병은 1907년에 일어난 헤이그 특사 사건, 고종의 강제 퇴위, 그리고 정미7조약과 군대해산에 이어 일어난다. 군대해산 이후의 의병은 1차, 2차 의병과는 달리 단순한 의거가 아닌 의병 전쟁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활동 규모, 기본 화기, 전술 편성, 신분계층 등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3차 의병이 전개한 활동으로 손꼽히는 것은 13도 총대장 이인영, 군사장 허위 등으로 조직된 연합의병대인 13도 창의군의 서울진공작전이었다. 하지만 서울진공작전은 무산되었고, 의병은 전국에 흩어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후 각 지방의 의병은 지리적 이점과 민간인들의 협조로, 갈수록 악랄해지는 일제 침략자와 그들의 앞잡이들을 응징하였다. 우리 고장은 3차 의병의 핵심 지역으로서 전남지역 전체가 의병의 활동 무대였고, 이 지역 사람들은 의병으로 활동하거나 그 배후 지원세력이었다. 1909년 전국 의병 전투 횟수의 47.2%, 참여 의병 수의 60%가 전라도에서 일어났다. 일제는 1909년 9월 1일부터 약 2개월 동안 소위 '남한 폭도(暴徒) 대토벌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전라남도 지역에 대대적인 탄압을 가했다. 이는 항일 의병이 가장 격렬한 지역이 우리 고장이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일제는 2,000여 명의 정규군을 동원하여 3단계에 걸친 작전으로 전라남도 지역에 항일 의병들을 진압, 소탕하였다. 제1단계 작전은 전북 남원을 기점으로 고흥, 광주, 영광 등으로 이어지는 외곽 지대, 제2단계는 고흥, 광주, 영광 근방을 기점으로 남서해안에 이르는 지대, 제3단계는 전라남도 서쪽 지방으로 탈출하는 항일 의병들을 섬멸하기 위해 무인도 지역까지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초토화 작전'이었다. 일본 제국 군대는 압도적인 화력

의 우세로 잔학한 방법을 동원하여, 양민을 무참히 살육하고 민가에 방화하고 약탈을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항일 의병장들만도 103명이 희생되었는데, 그중 항일 의병장 전해산 등 23명이 일본군에 체포되어 형장에서 순국했다. 이때, 일본군에 잡힌 항일 의병들은 강제노동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 대표적 경우가 해남에서 장흥, 보성, 낙안, 순천을 경유하는 광양에서 하동까지의 도로작업에 강제노역 동원된 것이었다. 뒷날, 일본군들은 이 도로를 '폭도 도로'라고 명명했다.

## 2) 서암 양진여와 설죽 양상기

양진여(梁振汝, 1862~1910)는 광주군 서양면 니동(현재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에서 태어났으며 호는 서암이다. 주막을 운영하던 중 손님들의 시국담을 듣고 의분을 느껴 1908년 7월 20일경 아들 상기와 함께 광주 군내에 격문을 뿌리고 동지 30여 명을 모집하여 의병장으로 추대되었다. 박성일·김익오로부터 군자금과 군량을 징발하는 등 주로 광주·창평·나주·장성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같은 해 11월 광주 대치산에서 일본군 수비대와 싸워 큰 전과를 올리고, 이어 그 일대의 의병 부대와 연합하여 추월산에서 전투를 치렀으나 패하였다.

추월산 전투 이후 양진여 부대는 점차 쇠락하였다. 1909년 4월 이후 양진여와 그 부대는 사료에서 사라지고, 1909년 8월 26일 담양군 대전면에 피신 중인 양진여 체포 기사가 나온다. 양진여는 체포되어 9월 1일 광주지방법재판소로 송치된 후 12월 13일 광주지방법재판소에서 교수형을 받았다. 항소했지만, 1910년 3월 대구 공소원 형사부는 내란죄를 적용하여 교수형을 판결하였다. 그해 5월 30일에 대구 감옥에서 순국하였다. 그의 시신은 대구까지 달려간 사위에 의해 광주로 이송되어 광주 서구 매월동 백마산 기슭에 안장되었다. 그의 무덤 앞에는 “내 한 목숨은 아깝지 않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치욕을 당해 형을 받고 죽음은 유감이다.”라고 새겨진 비가 서 있다.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그의 아들 양상기(梁相基, 1883~1910)는 진위대 병사 출신으로 1907년 군대해산 후부터 1908년 4월까지 광주경찰서 순사로 근무하였다. 하지만 아버지가 의병장이었고, 또한 의병들과 기맥을 통하고 있던 터라 일제에 의하여 파면되었는데, 그 즉시 의병항쟁에 나섰다. 1908년 5월에 광주를 근거로 거의擧義 하여, 약 80명으로 된 의병진을 편성하고 의병장이 되었다. 1909년 5월까지 전라남도의 광주·동북·담양·장성·창평 등지에서 친일역도를 처단하고 일본기관을 파괴하며 일본군과 싸웠다.

1908년 11월에는 광주에서, 그해 12월에는 동북에서, 1909년 3월에는 광주와 동북군 외북면 서유마을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 그리고 그해 5월에는 담양군 무정면 덕곡리에서 일본 수비군 및 경찰과 격전하였다. 그 뒤 남원에서 잡혀 1910년 8월 1일에 교수형으로 순국하였다. 1977년 건국 포장이 추서되었다.

양진여 집안의 의병 활동은 또 있다. 양진여의 동생 양동골도 양진여 부대에서 활동하다 체포되어 3년의 유배형을 선고받았다. 양진여 부대의 군자금 확보를 위해 주막을 경영했던 양진여의 부인 박순덕도 일제의 고문으로 평생 두 눈이 새빨갈게 총혈된 채 고통을 겪다가 사망했다. 서암 양진여 집안은 전국 최고의 의병 가문이라 할 만하다.

### 3) 죽봉 김태원과 김율

김태원(金泰元 1870.9~1908.4.25) 일명 김준(金準)은 전남 나주군 문평면 갈마리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지략이 웅대하였으며 벼슬은 순릉참봉에 그쳤으나 국운이 기울어지매 국사에 부심하였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동학에 척왜양이 사상이 있다 하여 일시 참여하였으나 민폐가 자심하여 아우 율(律)과 함께 수원에 피해 살았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최익현·이남규 선생 등이 의병을 일으켜 순국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비분강개하던 중 1907년 9월 성재 기삼연이 장성에서 거의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일가인 전 참봉 김돈과 의논하고 의병을 규합하여 호남창의회맹소에 합류하여 선봉장이 되었다. 동년 9월 9일에는 고창의 일본군을 무찔렀으며, 의진의 전세를 확장할 목적으로 김준은 기삼연과 영역을 달리하여 활약할 것을 결의하였다.

1907년 10월 4일에는 신덕순과 정읍 내장사에서 만나서 창의하는 일을 의논하였다. 그리고 군사를 거느리고 순창 회문산으로 들어가 무기를 감추어 두었던 곳을 찾아갔으나 이미 적에게 빼앗긴 뒤였다. 다시 회문산으로 회군하였는데 적군의 내침을 당하였다. 밤길을 1백여 리나 걸러 온 군사들이 모두 휴식하고 있을 때였다.

이 전투에서 신덕순은 체포되어 정읍으로 압송되고, 의진은 일시 무너졌다. 12월 김준은 나주·함평·장성·무안 등지를 신출귀몰하듯이 휩쓸었으며 함평주 재소를 습격하여 일인 순사를 사살하고, 소위 일군의 토벌대와 여러 차례 전투를 벌인 데 이어 그 지휘자 천단조장(川端曹長)과 부하를 사살하는 등 적에게 큰 타격을 가하였지만, 김준 의진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았다.

이 당시 체포당한 부하들의 재판 기록을 보면 그의 활약상과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나주에서 미곡상을 하던 당시 34세의 조정인은 김준 의진의 수백 명과 함께 4백여 정의 총기를 휴대하고 나주·함평·장성 등지에서 일본군과 전투한 혐의로 1908년 6월 체포되어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18세



의 심수근은 조정인의 명을 받아 나주 가산에서 탄환 제조하는 것을 경비하다가 4월에 체포되어 조정인과 함께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윤원거는 무안군 금도면 옥동에서 살던 사람으로 12월 14~15일(양)경 김준과 그의 부하들에게 숙식을 제공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11월 25일 참모장 김익중과 이남규가 전사한 데 대한 보복전으로서 성재와 합진하여 영광에 있는 적의 소굴을 소탕하고자 하여 먼저 법성포에 불을 질러 공격하여 큰 성과를 올렸다. 김준은 다시 광주·나주로 옮기고 성재는 장성으로 돌아갔다. 이때 율의 진은 사화에 있었는데 율이 본래 성재의 문인으로서 박사라 칭해졌으므로 그의 진을 박사진이라고 일컬었다. 때마침 율의 진이 적의 공격을 받아 흩어졌으므로 선봉장 조경환, 도포장 최동학과 상의하여 의진을 동북·창평 등지로 옮겼다. 김을 역시 군사 수십 명을 거느리고 따랐다.

창평의 지곡에 도착하여 하루를 머물고 무동촌으로 진군한 것이 1908년 1월1일(음)이었다. 이날이 순창 구수동에서 은신하고 있던 성재 기삼연이 체포된 날이다. 한편 김준은 적장 길전승삼랑(吉田勝三郎) 즉 요시다가 이끄는 기마병에 쫓기게 되었다. 요시다는 10척 장신으로 용력이 뛰어났으나 접전 끝에 김준에 의해 사살되었다. 그러나 김준의 부하 강길환, 조덕관 등의 전사로 형세가 심히 위급하게 되었으나, 김을의 군사가 협공하여 적을 물리칠 수 있었다. 이 전투에는 이운선이 참여하였는데 그는 나중에 김준이 전사하자 다시 조경환의 부하가 되었으며, 1909년 체포되어 7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이민영 역시 김준이 부하로 5년 형을 받았다.

그 후 김준의 의진은 장성 월평에 머물렀다. 이때 성재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상복을 입고 토천 뒷산에 돌로 성을 쌓아 적병을 유인하여 적장을 사살하였다. 그날 밤으로 영광 땅으로 향하였는데 낭월산에서 적을 만나 도포장 최동학이 죽고 이어서 많은 사상자를 냈다.

정신적 지주였던 성재 사후에도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 전세를 화려하게 펼쳤다. 세력확대를 위하여 이대극과 협력하기도 하였다. 이때부터 스스로 대장으로 칭하였고 군도를 차고 쌍안경을 가지고 다녔는데 동작이 기민하여 신출귀몰하였으므로 당시 일인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의 전공은 동료 의병들 간에도 크게 평가되고 있었다. 3월 21일(양)에는 장성군 광곡에서 부하 80명을 이끌고 활동하였으나 토벌대의 포위 공격을 받고 바위굴에 은거하였다가 밤을 타서 탈출하였으며, 그 후에도 10여 차례나 적의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세력이 약해진 뒤에 허리 병이 도져 나주 박산 촌(지금의 광산구 어등산 지역)에서 치료하던 중 적에게 발각되었으나 지병이 악화하여 대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4월 25일 김준은 3시간의 치열한 접전 끝에 23명의 의병과 함께 어

등산에서 피살, 순국하고 말았다.<sup>7)</sup> 일찍이 그와 함께 의거를 일으킨 동지이며 아우인 율 역시 3월 30일에 체포되어, 형 김준의 죽음을 확인하고 처형당하였다. 그의 처는 아들 하나를 기르다가 광무 황제의 상을 당하자 아들을 문중에 맡기고 그날 밤으로 자결하였다.

김준(김태원)은 일찍이 의병을 일으켜 수백을 살상하였으나, 병(兵)은 정예가 중요한 것이지 숫자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고 역설하여 거느리는 부하는 늘 삼사십 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치밀한 훈련과 실전을 거쳐 정예부대에 속해있던 그의 부하들은 그의 사후에도 각기 한 부대의 의병장이 되어 각지에서 의병 활동을 전개하였으니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그의 부하로써 유명한 의병장이 된 인물은 조경환과 오성술, 전해산을 들 수 있다.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 【참고 문헌】

- ◁노성태, ‘광주의 기억을 걷다’, 살림터, 2014.04.
- ◁이상식·오종일, ‘의향’, 광주광역시교육청, 2020.12.
- ◁정중수·정인서, ‘진정한 광주인 회재 박광옥’,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1997.10.
- ◁김종·정인서·정중수, ‘광주의 혼 의병장 김세근’, 광주광역시 서구문443화원, 2020.12.
- ◁황광우, ‘나는 왜 이제야 아는가’, 광주광역시교육청, 2020.05.
- ◁박선홍, ‘광주1백년’, 광주문화재단, 2015.12.
- ◁김덕진 외 4인, 서구 마을이야기,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08.

---

7) 광주 농성광장의 김태원(김준) 의병장 동상은 두 눈 부릅뜨고 어등산을 바라보고 있다.

## 제2강좌

# 광주와 일제하 항일 독립운동

김 성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상임고문)

## < 목 차 >

### 1. 광주의 3·1운동

- 1) 시대적 배경
- 2) 2·8독립선언
- 3) 서울의 3·1독립운동
- 4) 광주와 전남에서의 3·1독립운동

### 2. 광주의 학생독립운동

- 1) 개요
- 2) 학생독립운동의 시대적 배경
  - 가) 1920년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 나) 교육환경의 변화
  - 다) 광주지역 학교의 움직임
- 3)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전개
  - 가) 학생들의 분위기
  - 나) 11월 3일의 1차 시위
  - 다) 11월 12일의 2차 시위
- 4) 파급효과
  - 가) 전국에서 320개 학교 참여
  - 나) 1945년 해방때까지의 학생독립운동
- 4) 학생독립운동의 희생자들
- 5) 과제
  - 가) 눈물어린 기념일 변천사
  - 나) 참여학교들과 함께 하는 기념일을 만들자.
  - 다) 전국화·국제화 필요
- 6) 글을 마치며

## <생각해 보아야 할 일>

1. 광주의 3·1독립운동은 전국적인 운동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2. 광주·전남 각 지역의 3·1독립운동에 대해 어떤 기념사업이 펼쳐지고 있는가.
3. 한국학생운동의 횃불이 되었던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4. 320개 참여학교가 연대하여 기념사업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5.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18광주민중항쟁이 갖는 공통적 의미는 무엇일까.
6. 광주에서 시작된 운동에 대해 나는 어떤 체험을 했는가.

# 1. 광주의 3·1운동

## 1) 시대적 배경

1910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탄하기 직전 호남지역에서는 의병활동이 끊이지 않았다. 그 근거로 1908년 전남에서 의병의 교전횟수가 전국의 13.9%, 의병수 12.7%였는데, 1909년에 들어서는 전남에서 의병 교전횟수는 전국의 38.1%였고, 교전 의병수는 전국의 45.6%였다. 여기에 전북의 의병활동까지 포함시킨다면 전라도의 교전횟수는 47.6%, 교전 의병수는 60.1%에 이르른다. 일제는 이같이 호남의병의 격렬한 항쟁을 놔두고 한일합병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1909년 9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2개월간 일본군 2개 연대(2,260명)와 헌병, 경찰, 해군 함정들을 동원하여 전북 남부에서 섬진강 하구를 연결하는 포위선을 쳐서 전남 장흥 완도까지 토끼몰이식 ‘남한대토벌 작전’을 전개하였다. 일제는 군대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양민과 민가에 방화·약탈·학살을 병행했다. 이 작전으로 일제에 붙잡힌 의병장이 103명이었고, 그중 23명은 처형되었다. 일본군이 작성한 ‘전남폭도사’에 의하면 사망자 420명, 체포·자수자 1,687명(자수자 850명), 노획총기 455정 등이었다. 그러나 방화·약탈피해, 의병과 관련없는 양민 피해까지 합치면 수 천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의병들은 만주로 옮겨가 본격적인 무장항일투쟁을 벌이게 됐고, 호남에서의 독립운동은 이 남한대토벌작전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내면서 크게 위축되었다.

일제는 호남의병을 제압한 뒤 합병작업을 벌여 8월 29일 드디어 대한제국을 손아귀에 넣었다. 일제는 군인을 총독으로 임명하고 헌병으로 하여금 치안을 담당하게 하는 헌병정치를 펴는 한편 토지조사사업을 벌여 전 농토의 40%, 산림의 50%를 주인없는 땅이라고 하여 동양척식회사에 귀속시키고 이를 일본인들에게 관리하게 하였다.

1918년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전쟁의 처리를 위해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하였다. 민족자결주의는 원래 1차 대전의 패전국들에게 식민지를 내놓도록 하고 전승국인 프랑스나 영국이 이를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그 내용 중 ‘모든 민족은 자기 나라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우리 민족이나 독립을 원하는 약소민족들에게 ‘자주독립’에 대한 희망을 안겨 주었다.

자주독립을 표방하자는 움직임이 각계 지도자들 사이에 일어나면서 국내에서는 손병희 등 천도교와, 이승훈 등 기독교, 한용운 등 불교계는 물론 송진

우 김성수 등이 간여하고 있는 보성학교 배재학교 교사·학생들까지 참여하여 3·1운동을 전개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 2) 2·8독립선언

이에 앞서 동경 유학생들은 2월 8일 동경에서 2·8독립선언을 발표하였다. 2·8독립선언은 순수한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3·1운동의 발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10년 일제가 대한제국을 병탄한 이후 일본에 유학가 있던 유학생들은 조선유학생학우회·조선기독교청년회·조선학회·조선여자친목회 등 단체를 조직하여 회원들의 애국심을 고취하여왔다

재일유학생들이 한국의 독립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이미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부터라고 하겠으나,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게 된 직접적인 자극은 1918년 1월 종전을 앞두고 미국 대통령 윌슨이 발표한 평화원칙 14조와 그 해 11월에 성립된 제1차 세계대전의 휴전조약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1919년 1월 6일 동경 간다(神田)에 있는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웅변회를 열어 “오늘의 정세는 우리 조선민족의 독립운동에 가장 적당한 시기이며, 해외의 동포들도 이미 실행운동에 착수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마땅히 구체적인 운동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결의하고 실행위원으로 최팔용·서춘·백관수(전북 고창)·이종근·송계백·김도연 등 10명을 선출하였다. 실행위원들은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이를 일본 정부와 각국 대사, 그리고 일본 귀족원·중의원 양 의원에 보내기로 결의하고 1월 7일 청년회관에서 회원 약 200명을 모아 실행위원의 결의사항을 보고하고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었다. 실행위원 중 전영택이 신병으로 사퇴하자 북경으로부터 서울을 거쳐 동경에 온 이광수·김철수(전북 부안·제3차 조선공산당 초대 책임비서)를 새로 추가하여 11명의 실행위원이 먼저 조선청년독립단을 조직하고 독립선언서를 기초하였다. 정광호(광주, 해방 후 광주부윤·제헌의원, 한국전때 납북)는 김마리아 등 여학생 10여 명을 2·8선언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기도 하였다.

기초위원으로는 백관수·김도연·이광수를 선출하였으나, 실제 문안작성은 이광수가 전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완성된 선언서 초안 한 부는 송계백과 최근우에 의하여 국내에 반입되었고, 중앙학교 현상윤·송진우·최남선·최린 등이 이를 받아보고 흥분하였다고 한다.

2월 8일 동경의 기독교청년회관(재일본도교조선YMCA 현 재일본한국 YMCA)에 모여든 조선 재일 유학생 400~600여 명 앞에서 최팔용이 ‘조선청

년독립단' 발족을 선언하고, 이광수가 기초한 2·8독립선언서를 백관수가 낭독했다. 참여한 사람은 장영규·최팔용·윤창석·김철수·백관수·서춘·김도연·송계백·정공균·변희용·강종섭·이정훈·이봉수·김승민 등이다. 이들은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은 자주민임을 선언”하였고,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며 민족의 권기를 촉구했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거리로 나서자 일본 경찰들이 들어닥쳐 해산을 명하였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이를 거부하여 큰 소란이 일어났다.

막후에서는 최원순(광주, 동아일보 편집부국장 역임)·변희용·최승만 등이 동지규합, 장소물색, 군자금조달, 국내와의 연락, 학생운동의 방향 결정 등에 공헌하였다. 2·8독립선언으로 인해 60여 명이 체포되었다가 실행위원 11명 중 9명이 주모자로 판명되어 최고 금고 9개월의 징역형을 언도받았다. 2월 12일 오전에도 50여 명의 조선인 학생들이 청년회관에서 독립운동을 협의하다가 검거되었다. 2·8독립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단은 일·한 합병이 오족(조선 민족)의 자유의사에 출치 아니하고 오족(조선 민족)의 생존 발전을 위협하고 동양의 평화를 요란케 하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독립을 주장함.
2. 본단은 일본 의회 및 정부에 조선 민족 대회를 소집하여 대회의 결의로 오족(조선 민족)의 운명을 결할 기회를 여하기를 요구함.
3. 본단은 만국평화회의 민족자결주의를 오족(조선 민족)에게 적용하기를 요구함. 우 목적을 전달하기 위하여 일본에 주재한 각국 대사에게 본단의 의사를 각 정부에 전달하기를 요구하고 동시에 위원 3인을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함. 우 위원은 기히 파견된 오족(조선 민족)의 위원과 일치행동을 취함.
4. 전 제항의 요구가 실패될 시에는 일본에 대하여 영원히 혈전을 선포함. 차로써 발생하는 참화는 오족(조선 민족)이 기책을 임치 아니함.

한편 유학생들은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조선독립단 동맹휴학촉진부를 결성하여 동맹휴학운동을 전개하거나, 고국으로 돌아가 3·1운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광수가 작성한 ‘2·8독립선언서’는 일제침략행위를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병합이 민족의 의사를 무시한 일제의 군국주의적 야심의 사기와 폭력에 의해 이뤄졌음을 규탄하였다. 또한 식민지정책의 야만적 성격을 폭로하였고, 일제와 열강은 마땅히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한국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선언서는 최남선이 ‘3·1독립선언서’를 기초할 때 참고로 하였다. 최남선은 이광수와 문맥은 같이 하였으나 손병희가 “되도록 온건하

게 쓰라”고 한 지시에 따라 2·8선언서의 과격한 표현을 좀더 부드럽게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2·8독립선언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민족의 자유를 추구하고 “만일 이로써 성공하지 못하면 온갖 자유행동을 취하여 최후의 일인까지 열혈을 흘릴 것이며, 영원한 혈전(血戰)을 불사한다”라고 한 반면 ‘3·1독립선언서’는 공약 3장 2에서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궤히 발표하라”고 기술하였다. 결론적으로 2·8독립선언은 무단통치하에 신음하는 2,000만 민족의 고통과 강렬한 독립요구를 한층 절실하게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3) 서울의 3·1독립운동

서울의 3·1운동은 3월 1일 유교를 제외한 천도교·기독교·불교계 대표 33인의 이름으로 작성된 ‘3·1독립선언서’를 발표하는 한편 고종의 장례를 위해 몰려든 민중들을 상대로 학생들이 앞장서서 대규모 시위운동을 일으킨다는 계획 아래 추진되었다.

3월 1일이 되자 민족대표 33인은 태화관에 모여 독립을 선언하고, 시민들과 학생들은 파고다공원에 모여 오후 2시 30분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가두 시위에 들어가 서울은 온통 만세물결로 파도쳤다.

이날 계획했던 대로 서울과 평양·의주·선천·안주·원산·진남포 등 6개 지방 도시에서, 3월 2일에는 함흥·수안·황주·중화·강서·대동·해주·개성 등 천도교와 기독교의 조직력이 강한 평안도·함경도·황해도의 주요 도시들로 시위가 확산되었다. 3월 3일에는 고종의 장례식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집결하였다가 이들 가운데 많은 수가 시위에 참가했다. 또 고종의 장례식을 참관하고 지방으로 돌아가는 참배객들에 의해 시위소식이 전파돼 3월 중순 이후 각 지방으로 시위가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3월 10일 이후에는 시위가 경상도·전라도·강원도·충청도 등 중남부 지방으로 확산되었는데, 이 과정에는 교사와 학생 등 지방의 지식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들은 선언서 등 각종 유인물과 시위 경험을 각 지역에 전파했으며, 비밀결사와 결사대를 조직해 시위를 조직하고 주도하였다.

일제는 3·1운동을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했는데, 화성 제암리·천안 아우내·정주 광산·남원 광한루·익산 이리 등 전국 각지에서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는 등 학살을 저질렀다. 그리고 시위자들을 체포하여 가혹한 고문을 서슴지 않았다. 당시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의 통계에 따르면 3·1운동 이후 3개월 동안 시위진압과정에서 7,509명이 사망했으며, 15,961명이 상해를 입었다. 46,948명이 구금되었고, 교회 47개소, 학교 2개교, 민가 715채



가 불탔다.

그런데 운동의 참여 인원에 대하여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다. 일본인 학자 야마베 겐타로는 운동 참여자를 50만 명 이상으로 추정했고, 한국 학자 신복룡은 46만 명 정도로 파악하였다. 또 역사학연구소의 《함께 보는 한국근현대사》(서해문집, 2004)와 한영우의 《다시찾는 우리역사》(경세원, 2002년)는 참여 인원을 2백만여 명, 전국의 만세시위 건수 1,542회였고 사망·부상·체포자는 박은식의 통계를 바탕으로 삼았다. 많은 한국의 교과용 도서에서도 대체로 이 통계를 활용했다.

조선총독부 쪽의 통계는 이와 크게 차이 난다. 당시 조선헌병대사령부와 총독부 경무총감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조선소요사건일람표》에 의하면 4월 말까지 조선인 시위 참여자는 58만 7,641명(50명 이하 참여자의 경우는 제외), 검거자 26,713명(당일 13,517명, 추가 검거 13,196명), 사망 553명, 부상 1,409명이라고 집계되어 있다. 호남에서의 독립만세시위도 박은식의 기술과 조선총독부의 집계표가 큰 차이를 보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1운동을 계기로 4월 13일 민주공화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19세기 후반부터 이어져 온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이 첫 결실을 맺었다.

합병 이후 무단통치를 해왔던 조선총독부는 3·1운동 이후 문화 통치로 정책을 바꿔 기존의 강압적 통치에서 회유적 통치로 그 방향을 선회하게 된다. 이로 인해 단체 활동 및 언론 활동이 허가되었고 기초적인 초등교육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한 것으로, 친일파 양성을 통해 한민족의 분열을 시도하였다. 그러한 근거로 일제가 한반도에서 축출될 때까지 문관 총독을 단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고, 헌병 경찰제를 보통 경찰제로 바꾸었지만 사실상 명칭만 변경된 것이고, 독립운동가 색출을 위한 전문적인 '고등 경찰제'를 실시하여 경찰력을 강화했던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3·1운동에 대한 당시 일본 정부의 공식적 사건 명칭은 '조선만세소요사건'으로, 기본적 시각은 '소요'(못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폭행·협박을 함으로써 한 지방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였다. 5·18도 반란군부는 오랫동안 '소요'·'폭동'으로 지칭하였다.

3·1운동은 중국의 5·4 운동에 영향을 주었으며, 인도의 반영운동, 그 밖에 베트남, 필리핀, 이집트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우리 학계는 주장해 왔다. 하지만 중국의 5·4 운동에 참여한 일부 지식인에게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월슨의 민족자결주의와 러시아 혁명이라는 볼셰비키주의의 영향

을 받았고, 민중의 폭력적 시위와 연결된 점에서 다른 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1946년 3월 1일 제27회 기념식을 시작으로 ‘3·1절’이라고 하여 국가 경축일이 되었고,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함으로써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 4) 광주와 전남에서의 3·1독립운동

광주의 3·1운동은 기독교계와 깨우친 청년들의 모임인 신문잡지종람소(삼함양조장) 회원들이 힘을 모아 시작했다. 신문잡지종람소 회원으로는 정상호, 김복수, 박팔준, 김용규, 한길상, 최한영, 강석봉, 김태열, 강생기 등 10여명이 있었는데 한길상이 광주보통학교 2회, 김복수가 3회, 정상호·김태열이 4회, 김용규·최한영이 5회, 강석봉이 6회, 그리고 강생기는 7회 졸업생이었다. 이 가운데 김용규·최한영·김태열·강생기는 농업학교 졸업생이기도 했다.

광주의 준비는 2·8독립선언과 연결되어 있다. 동경에 유학 중인 정광호와 최원순이 2·8독립선언문을 가지고 와서 서울에서 김범수(경성의전생) 등을 만났다. 그리고 2월 5~6일 정광호·김범수·박일구·최정두·김태열(광주보통학교 교사) 등이 박일구의 처가인 전남 장성군 북이면 백암리 김태형 집에서 600매를 인쇄했고, 김태열은 50매를 최한영 집에 숨겼다.

2·8독립선언서가 다른 루트를 통해 광주에 전해졌다는 견해도 있다. 《수피아 100년사》(2008년)는 “수피아 교사 출신인 김마리아가 당시 수피아 교사로 있던 언니 김함나에게 전해주었다”라고 서술되어 있고, 《광주제일교회 110년의 발자취》에는 “김마리아가 광주로 가져와 고모인 김필례에게 전달했고, 김필례는 남편 최영욱의 서석병원 지하실에서 그것을 복사하였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한편 기독교계는 2월 말 서울에서 김필수 목사가 광주로 파견되어 양림교회 장로인 최흥종과 신도 김복현을 만나 시위를 논의하였다. 이후 두 사람은 서울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3월 2일 서울로 올라갔다. 그러나 최흥종은 3월 5일 서울의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고, 김복현만 6일 선언서를 가지고 내려와서 이날 남궁혁 목사집에서 있는 만세운동을 위한 준비모임에 참석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각자의 임무를 분담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최한영 : 선언서, 태극기 준비.

△서정희 : 일반시민 동원

△김 강(송일학교 교사) : 예수교회 교인 동원

△홍승애(학생) : 수피아여학생 동원

△최병준·손인식(송일학교 교사) : 송일학교 학생 동원

△김태열, 최영균, 김용규 : 기타학교 학생 동원

참석자들 가운데 김복현·김강·최병준·강석봉·한길상·최정두·김태열은 양림교회 교인이었고, 김태열·한길상·김용규·강석봉은 신문잡지종람소 회원으로 관계가 겹치고 있어 조직적 거사가 가능했다.

원래 거사일을 3월 8일 광주 ‘큰 장날’로 정했다. 인쇄는 신문잡지종람소 회원이 맡고, 인쇄용지 조달은 대지주로 유기상회를 경영하던 강호일의 아들 강석봉이 맡았다. 강석봉은 인쇄용지 1만장을 거금 3,000원에 사들였다. 등사기는 최정두가 소유한 것과 손인식의 도움으로 송흥진이 송일학교에서 가져온 것을 사용하였다. 인쇄는 3월 8~9일 최한영 집에서 선언서 태극기와 격문(경고 아 2천만 동포), 및 애국가, 독립운동가 등을 인쇄했다. 참여자였던 최한영·김용규·최정두·범윤두·김종삼·한길상 등은 방문을 이불로 가리고 8,000장을 인쇄하였다. 9일 밤 김복현·김강·서정희·송흥진 등이 이기호 집에서 다시 모여 점검한 결과 그날 밤 안으로 인쇄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작은 장날’인 10일 오후 30분 큰 장터에서 시위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드디어 3월 10일 오후 3시 30분 수백 군중이 광주천변 큰 장터에 모여 김복현·김강·서정희의 선창에 따라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에 나섰다. 이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작은 장터로 향하자 시위군중은 1,000명을 넘어섰다. 송일학교 학생 100명·수피아여학교 학생 30명, 예수교인들이 여기에 합류하였다.

송일학교 교사 최병준은 3월 10일 아침, 김강으로부터 받은 독립선언서 등 1,000여 장을 송일학교 보통과와 고등과 각 학년의 대표자인 정두범, 김철주, 김성민, 김판철, 김정수 외 1명(송광춘)을 불러 각급 생도 1명에게 약 20장씩의 비율로 배포하도록 선언서 등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이들에게 특별히 남문 밖과 동문 밖, 서문통에서 일반 시민에게 배포하도록 구역을 정하는 등 별도 임무를 부여하였다.

수피아여학교 교사 박애순은 만세운동이 있기 일주일 전쯤, 학생들에게 독립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매일신보의 기사를 읽어주고 “만국강화회의에서 조선도 독립을 승인하였기에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개시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 운동을 벌여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득하였다. 또 수피아학교 수피아홀 지하에서 박영자, 홍순남, 최경애, 양태원 등이 3월 7~8일께 구한국 깃발을 제작하기도 했다.

작은 장터를 출발한 시위대는 서문통을 지나 우체국 앞에 도달한 후 왼쪽

으로 꺾어 본정거리로 들어와 북문 밖(총파, 광주농교생 합류)에 이르렀다가 다시 거슬러 우체국 앞에까지 되돌아왔다. 그리고 광주경찰서(전 총장서림터)를 향해 나아갔다.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기마 헌병대가 출동하였으나 진압에 실패했다. 그러나 수피아여학교 학생 윤형숙은 일본 헌병이 휘두르는 칼에 팔이 잘려나가는 부상을 입었다. 후일 재판정에서 그녀는 재판장이 이름을 묻자 “윤혈녀”라고 대답했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다. 이밖에 일곡에서는 이주상과 그의 아들인 이윤희, 이창호와 함께 수백명이, 생룡의 범씨, 일곡의 노씨 등도 집단으로 가세하였다.

광주의 만세시위는 다음날인 11일에도 계속됐고, 큰 장날인 13일에도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많은 사람이 검거되었다. 신문도 등장했다. 제중병원 직원 황상호는 ‘조선독립광주신문’을 2호까지 발행하여 영암·목포 등 여러 곳의 시위에 영향을 미쳤다. 17·18일에는 송정리에서 박경주·범윤두·김용규 등이 최정두가 가져온 인쇄기를 이용하여 수 천장의 유인물을 인쇄하여 준비한 뒤 26일 만세시위를 벌였다.

광주의 시위로 구속된 사람은 103명이나 되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김복현 외 21명은 주동자급, 박애순 외 76명은 적극 가담자, 황상호는 신문 발행, 최영섭은 3월 10일 시위와 별건으로 구속됐다. 당시 최고형인 징역 3년 허를 받은 사람들은 김복현·김강·최병준·한길상·김종삼·최한영·김용규·김범수·박일구·최정두·김태열·정광호·범윤두·박경주 등 14명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103명을 직업별로 보면 학생이 절반인 53명을 차지했다. 송일학교생 24명, 수피아여학교생 20명, 농업학교생 6명, 보통학교생 1명이었고, 전문학교 이상은 경성의전 재학생 김범수와 일본 메이지대생인 정광호였다. 또 학생동원을 맡은 송일학교 교사 최병준과 수피아여학교 교사 박애순 등 두 학교 교사 7명이, 학생은 45명이 옥고를 치렀다.

3·1만세운동은 전남의 곳곳으로 확산되었는데 지역 및 날짜는 다음과 같다. 장성(3월 10일, 21일, 4월 3~4일 북이면), 영광(3월 10, 14, 15, 26, 27일), 화순(3월 13일 능주, 15일 동북), 나주(3월 15일, 16일, 27일 다시면 등, 4월 3일 영산포 강가), 완도(3월 15일, 4월 8일(미수), 1920년 1월 20일 고금도), 장흥(3월 15일, 20일 대덕면, 기타 각 면), 무안(3월 18일 장산면, 3월 20일 무안읍), 담양(3월 18일, 1920년 1월 23일), 구례(3월 24일), 옥과(3월 25일), 광양(3월 27일, 4월 1일, 2일, 15일), 곡성(3월 29일), 강진(4월 4일), 해남(4월 6일, 11일, 1920년 4월 3일 우수영 지역), 순천(4월 7일), 목포(4월 7일·8일), 함평(4월 8일 월야면, 1920년 3월 26일, 4월 1일 학다리, 2일 나산면, 3일·5일 손불·엄다면 산상 봉화시위), 벌교(4월 9일, 13일), 영암(4월 10일, 구림도 같은 날 시위), 낙안읍(4월 13일). 또 강진(3월 26

일), 고흥(4월 14일)에서도 시위를 계획했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했고, 전라도 관리들에게 조선독립대 전라도지부 명의로 협박편지를 발송(4월 7일)한 일도 있었다.

## 2. 광주의 학생독립운동

### 1) 개요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0월부터 이듬해인 1930년 3월까지 광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운동으로 발전한 학생들의 민족해방운동을 말한다.

좀 더 깊이 살펴본다면 광주학생독립운동은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 1단계는 1929년 10월 30일 나주 통학생들의 총돌부터 11월 광주를 중심으로 목포 나주 등지에서 전개된 한일 학생 총돌과 한국 학생의 시위항쟁을 말한다.

제 2단계는 그 해 12월 서울의 각급학교 학생들이 봉기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갔던 것을 말한다.(혹은 11월 19일 목포의 시위운동부터 2단계로 볼 수도 있다. 격문의 성격이 광주 학생독립운동과는 크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하다)

제 3단계는 1930년 1월부터 이 해 3월까지 제 3학기동안 전국에서 전개된 시위항쟁을 말한다. [조동걸, ‘광주학생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 『광주학생독립운동 70주년기념 학술심포지엄- 11·3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에서 발췌. 조동걸 교수는 이 발표에서 ‘광주학생운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1월 15일 시위부터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됐다’고 기술하고 있다] 제 3단계는 3·1운동 11주기까지 경해서 계속됐다.

이 학생독립운동에는 공식적으로 전국 194개교에서 5만4천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이것은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축소해서 작성한 ‘조선의 치안상황’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06년 7월 학계 전문가들의 감수를 받아 조사한 결과 운동의 조짐이 있었던 학교까지 참여한 것으로 포함시킨 결과 모두 320개교였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다 해외까지 넓혀서 조사한다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1919년 3·1독립운동, 1926년 6·10만세사건과 함께 식민지시대의 3대 독립운동 중 하나로 불리게 된 것이다.

## 2) 학생독립운동의 시대적 배경

### 가) 1920년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의 식민지 통치가 무단통치로부터 문화통치로 바뀌짐에 따라, 언론·출판·결사 등에 대한 통제가 다소 완화되어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간행되고, 사립학교들이 속속 설립되었다. 또한, 일본자본의 침투로 공장노동자가 늘어나 청년단체·노동단체들이 폭넓게 조직되는 변화가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1920년대는 사회주의가 1917년 러시아 혁명에 성공하면서 사회개혁의 ‘꿈’이라는 희망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지식사회에서도 제국주의로 치달는 일본 정치권의 흐름에 반발해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일본 당국은 이를 ‘주의자’로 부르며 철저히 단속하였다.

한국의 지식사회 역시 사회주의를 조국 해방의 한 수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평등’과 ‘공산’이라는 단어나 내용들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이론으로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에 충분했다. 사회주의를 연구하던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공산당이 결성되었는데 1920년 5월에는 이르쿠츠크에서 고려공산당이, 1925년 4월 17일에는 김재봉 김낙준 김약수 조봉암 박헌영 등 19명이 서울에서 조선공산당을 비밀리 조직했다. 일제는 공산당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해방될 때까지 조직이 수차례 꺾였지만, 사회주의는 독립운동의 수단으로써 학생·노동자·농민들에게 끊임없이 확산되어 동력이 축적되었다.

1920년대에는 경제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다. 1910년부터 1917년까지 토지조사사업이 실시된 이후 많은 일본인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 자리잡고 농지, 광산, 임야 등을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인의 토지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발생한 사회현상이 소작쟁의였다. 대규모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자신을 대신하여 소작권을 관리할 ‘마름(숨푼이라고도 함)’을 두었는데 지주에게 연간 납부해야하는 비율을 가지고 항상 갈등을 빚어졌다. 일반적으로는 총수확량의 30~40%를 지주에게 납부하였지만 악덕지주들은 60~70%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고, 기상으로 수확량이 줄어들었는데도 똑같은 비율의 납부를 강요하는 가렴주구 행위가 빈발했다. 이로 인해 소작인들이 단체로 항의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이 소작쟁의였다. 특히 호남지역은 농지가 많아 육지는 물론, 섬에서까지 소작투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열차로 등하교하는 통학생들 가운데 일본인 학생이 적지 않았던 것도 농토를 가진 일본인의 자녀가 많았기 때문이었는데 한국인 학생들은 이같은 소작쟁의를 직접 지켜보면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배일감정을 갖게 되었다.

사회운동으로는 조선물산장려운동을 들 수 있다. 1920년 8월 평양에서 조만식 등의 발기로 시작되어 1923년 1월 서울에 조선물산장려회가 창립되면서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 운동은 민중의 생활향상을 위해 자립적인 민족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위해 국산품애용을 실천하자는 것이었는데 이 운동을 통해 민중들에게 경제적 민족주의를 고취시켰다.

1927년 2월 15일에는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민족주의자 진영과 공산주의자들이 함께 '신간회'라는 사회단체를 결성하고 전국에 지부를 출범시키는 대대적인 행사들이 진행하면서 조선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게되었다.

## 나) 교육환경의 변화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민족자결주의가 등장하면서 3·1독립운동이 일어났으나 소기의 목적은 이루지 못한 채 많은 피해만 내고 끝났다. 이 운동 이후 독립운동은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났다. 하나는 국내에서 교육을 통해 독립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자각운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해외에서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는 무장투쟁론이었다. 국내에서의 자각운동으로 광주에도 학교설립운동이 전개되었다. 1920년 이전에 학교는 각 시군에 현재의 초등학교와 성격이 같은 보통학교 1개교씩이 있었고, 광주에는 1909년 도립광주농림학교로 개교했다가 1924년 수업연한 5년으로 중등교육기관이 된 광주농업학교 하나밖에 없었다. 또 정식으로 인가받지 못한 기독교계 학교인 수피아학교와 송일학교가 있었을 뿐이다. 보통학교 졸업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급학교가 충분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은 서울이나 일본으로 진학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깨달은 지역사회의 유지와 재력가들이 학교설립운동에 나섰다. 그렇게 하여 총독부 인가를 받아 1920년 5월 1일 5년제 '사립' 광주고등보통학교가 개교하였다. 학년당 모집 학생수는 100명으로 2개 학급이었다. 그러나 일제가 중등교육을 친일지도자 양성으로 방향을 정한데다가 당초 약속과 달리 모금액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루문동에 짓기 시작한 교사(校舍) 신축공사가 차질을 빚게되자 결국 1922년 '사립' 광주고등보통학교를 '공립'으로 흡수하고 말았다. 한편 일본인들이 주로 다니는 광주중학교와 광주여자중학교는 1923년에 개교하였으며, 조선인 여학생들이 진학하는 광주공립여

자고등보통학교는 1927년 4월 25일 뒤늦게 개교하였다.

전국적으로 고등보통학교가 늘어나면서 학생들 사이에는 조국과 민족에 대해 각성하는 운동이 활발해졌다. 또 독립운동의 한 방법으로 당시 유행하기 시작한 사회주의의 이론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학생들의 항의형태로 동맹휴학(盟休)이 가장 많았는데 그 이유는 학교의 설비, 학교 규칙, 교칙에 불합리한 내용이 담긴데서 비롯됐다. 또 교원 배척에 관한 투쟁, 학교 내부에서 발생한 투쟁, 민족의식 및 좌경적 사상에 영향을 받은 투쟁 등이 빈발했다. 이렇게 하여 1920년대 후반 들어서면 중등학교에서 발생한 동맹휴학(맹휴)건수는 매년 200건이 넘었다. 특히 1927년과 1928년에 급격히 늘어났다. 이것은 사회적 분위기가 완숙해지면서 학생운동을 수행할 역량이 커졌음을 보여준 것이다. (광주고보·서중·일고 80년사. p156. 2004. 05.)

또 중등학교 학생들이 학생운동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성인에 가까운 나이들이었기 때문이다. 1920년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립보통학교(초등학교) 1~4학년 학생의 평균 연령은 11세~15세로 지금보다 많았다. 따라서 고등보통학교(중등학교) 학생 역시 10대 후반~20대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미숙한 연령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 다) 광주지역 학교의 움직임

광주의 중등학교에서도 전국적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한일 학생 충돌이나 맹휴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924년 6월 야구경기사건. 광주고보야구팀과 재광 일본인 선발팀인 '스타팀(성인)'이 광주고보 야구장에서 친선경기를 가짐. 광주고보팀이 1대0으로 승리했으나 일본 스타팀 단장 안도가 고보팀 투수를 구타하면서 양 팀의 선수 응원단들이 몰려 집단 패싸움이 벌어짐. 경찰이 광주고보 야구선수 9명만 연행해 가자 경찰서 앞에서 시위한 뒤 맹휴에 돌입. 3개월간 맹휴가 계속됐고 광주고보생 4명이 퇴학을 당함.

▲1927년 5월 수학여행을 다녀온 광주고보생들이 과학시설 확충을 요구하며 맹휴. 일본 만주 등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고보생들은 학교 과학시설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에 분개함. 더구나 일본인 학교인 광주중학교가 개교하면서 광주고보의 인문과 교사들이 대거 광주중으로 전출되고, 광주중은 인문계 교과목을 채택하는 대신 광주고보는 실업과목만을 배정하자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맹휴에 돌입.

▲ 1928년 6월 26일 유인물을 배포한 광주고보 5학년 이경채를 재판결과



도 나오기 전에 퇴학시킨 것에 학생들이 항의하며 맹휴. 중앙본부를 구성하는 등 5개월간 대맹휴를 벌임. 이 맹휴로 27명이 퇴학, 281명이 무기정학의 징계를 받음. 광주농업학교도 민족차별이 심한 일본인 교유의 배척을 요구한 진정서를 교장에게 제출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6월 29일부터 10월까지 맹휴에 들어감. 광주농업학교는 이 맹휴로 12명이 퇴학, 103명이 무기정학 징계를 받음.

▲ 1929년 2월 23일 학년말 종업식에서 학생들이 일본인 교장에게 학생들의 유시퇴학(의식있는 학생들을 교장 직권으로 몰아내는 것)의 이유를 따지면서 시위를 벌임. 이 사건으로 4명이 징역형을 받음.

또 맹휴와 함께 학생들 사이에는 새로운 이념과 학문을 탐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서회를 조직하는 일이 늘어났으나 일제가 사회주의를 식민지체제를 해치는 불온한 사상으로 규정하고 감시와 단속을 심하게 하자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비밀결사'를 조직할 수밖에 없었다. 가장 먼저 조직된 학생들의 비밀결사가 1926년 11월 3일 광주고보생과 광주농업학교생 16명이 참여하여 결성된 '성진회(醒進會, 깨달아서 나아간다는 뜻)'였다. 이 모임은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광주·전남 학생운동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이 모임의 강령은 다음과 같았다.

#### <강령>

- ①일본으로부터 조선민족의 해방을 기한다.
- ②일본제국주의 식민지정책을 반대한다.
- ③언론·출판·집회의 자유를 쟁취한다

성진회는 회비를 각출해 책을 구입한 뒤 한 달에 1~2회 모여 발표나 토론을 하고 다각적인 방향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1927년 3월, 발각 우려가 있자 보안을 지키기 위해 성진회를 해체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위장해체였다. 경계대상인 일부 회원들을 제외하고 모임을 계속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각 학교별로 독서회가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비밀결사는 전국 각지에서 유행처럼 일어났는데 그 비밀결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민족의식의 고취와 일제에 항거하여 독립을 쟁취하자는데 있었다.

일본에 유학중이던 성진회 출신의 장재성은 각 학교에 조직된 독서회를 네트워크화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하여 1929년 6월 양림동 양파정에서 광주고보, 광주농업학교, 전남사범 학생 대표들이 모여 '독서회 중앙본부' 조직에 합의하고 창립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①중앙본부는 주 1회 회합한다 ②각 학교 독서회는 중앙부와 같은 조직을 하고 이를 중앙부가 지도 통할한다 ③

각 학교 독서회원에게도 중앙부를 절대 비밀로 한다는 내용을 결의했다. 책임비서는 동경 중앙대학 재학 중인 장재성, 조사선전위원은 김상환·김보섭(이상 광주고보), 조직교양위원 송동식(전남사범)·김순복(광주농교), 출판위원 조길룡(광주농교)·이신형(전남사범), 재무위원 강달모(광주농교)·윤창하(광주 고보)로 구성됐다.

독서회 중앙본부가 조직되면서 각급 학교 독서회도 곧이어 구성되었는데 6월 하순 무등산 중머릿재에서 광주고보와 광주농업학교 독서회가, 7월 초순에는 양림동 수피아여학교 뒷산에서 전남사범 독서회가 조직되었다. 광주여 고보는 장재성의 동생 장매성에 의해 1928년 11월 소녀회를 구성하였다.

독서회와는 별도로 장재성은 1929년 9월 초순 독서회 중앙본부 회원들을 중심으로 광주학생소비조합을 발족했다. 이 소비조합은 독서회원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고 경제적인 활동비를 확보하는 한편 회원간의 연락을 다양화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모두 830원의 출자를 받아 동구 금남로 3가 금남공원 자리에 2층집을 얻어 1층에는 장재성 호떡집, 2층에는 문방구를 열었는데 문방구 옆방은 독서회 비밀집회장으로 활용했다.

각 학교에 구성된 독서회는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에 대한 신념을 확고히 하고, 곧이어 있는 11월 3일과 12일 학생독립운동 시위를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 3)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전개

#### 가) 학생들의 분위기

앞서도 밝혔듯이 1920년대는 신학문과 새로운 이념이 물밀 듯 들어오면서 노동운동, 농민운동, 민족 자강운동 등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또 식민지 정책을 통해 수탈과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일제와 조선인 사이에도 갈등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갈등은 독립운동을 염원하며 사회주의를 독립운동의 수단으로 활용하였고, 이 운동을 분출할 수 있는 중심세력으로 신학문으로 무장한 중등학교 학생들이 떠오르게 되었다. 당시 중등학생의 나이는 지금과 달리 15세에서 20대 초반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시대를 바라보는 눈 역시 높을 수밖에 없었다.

1920년대 중등학생들은 잦은 맹휴와 일제의 무단 검거를 지켜보면서 분노하게 되었고 건들기만 하면 곧바로 폭발할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이나 다름

없었다. 독서회 등을 통한 이념의 강화 역시 이들의 능력을 배가시켜 주었다.

따라서 11월 3일과 12일의 학생독립만세 시위가 광주에서 발생한 것은 학생들의 능력이 충만해 있었기 때문이다.

1929년 광주의 도시 규모는 호남의 중심지로서 한 해가 다르게 확대되고 있었지만 인구 3만을 넘지 않은 작은 도시였다. 중등학생수도 2,000명을 넘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조선인이 주로 다니는 학교와 일본인이 주로 다니는 학교가 나뉘어져 있어 별로 충돌할 일은 없었으나 좁은 통학열차 안에서는 한·일 학생에다 남·녀학생들이 몸을 부대끼며 1시간 이상 거리를 함께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충돌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이 해 6월에도 운암역을 지나면서 일본인 학생이 주막에 걸린 개고기 다리를 보고 ‘조선인은 야만인’이라고 놀려대서 말싸움을 벌인 적이 있었다.

일은 10월 30일 벌어졌다. 나주역에서 일본인 학생이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하자 조선인 학생이 만류하면서 난투극이 벌어졌다. 경찰이 나서서 뜯어말리면서 끝났다. 그 다음날인 31일에도 열차 안에서 다툼이 있었으나 차장이 말려 진정됐다.

11월 1일 오후에는 일본인 학생 30여명이 방망이 죽검 각목 등을 들고 광주역으로 쫓아와 조선학생을 위협했다. 그러나 연락을 받고 달려온 광주교보와 광주중학교 교사들, 그리고 경찰의 만류로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2일에는 한일 학생간 충돌은 없었으나 광주시내에 “광주역에서 한·일 학생간에 싸움이 벌어져 한국인 학생이 많이 다쳤다” “칼에 맞아 여러 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 나) 11월 3일의 1차 시위

11월 3일은 일본인에게서 전 일본 천황인 명치를 기념하는 명치절로 국경일이었다. (지금도 문화의 날이라고 하여 국가기념일로 정해져 있음). 공교롭게 우리에게서 음력으로 나라를 개국한 개천절이었다. 또 광주공원 광주신사 앞에서는 전남산견(産繭) 6만석 돌파 축하회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축하회에는 전남지사, 조선농업회 회두, 총독부 식산국장 등이 참석하고, 오후 1시부터는 축하비행과 광주에 있던 도시제사 여직공들이 시내에서 기수단 행렬을 벌이기로 되어 있었다. 일제는 시내 곳곳에 ‘산견6만석 돌파’ 아치를 걸어 축제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는 일제의 경제적 착취였고, 다음 해 생산을 독려하는 사탕발림이었을 뿐 기쁜 일이 아니었다.

학생들이나 조선인들 역시 마음이 편할 리 없었다. 학생들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념식에 참석하느라 등교하였다. 일본인 학생들은 광주공원에 있는 신사에 들러 참배했다.

조선인 학생 일부는 나주사건을 왜곡보도한 광주일보를 찾아가 항의하고 운전기에 모래를 끼였었다. 광주고보생 1명은 수기동에서 일본인 학생의 단도에 찔려 부상을 당하면서 사건은 커지게 되었다. 이것을 일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1월 3일

▲오전 10시 30분, 광주고보생들, 명치절 기념식에 참석하고 개별적으로 해산함.

▲오전 10시 30분, 일부 고보생들, 명치정(明治町, 현 금남로)에 위치한 일본인 경영 광주일보사로 향함. 광주일보는 일제의 기관지로서 며칠 전의 한·일학생 충돌사건을 편파적으로 보도하였음.

▲오전 11시, 광주일보사에 몰려간 학생들, 편파보도의 횡포와 만행을 규탄하고 항의함. 누군가가 운전기에 모래를 뿌림.

▲오전 11시, 광주공원 앞 천변에서 광주중학생(일본인)이 고보생 최쌍현을 단도(短刀)로 찌르는 등 폭력을 휘두름.

▲오전 11시, 최쌍현을 찌른 광주중학생들이 수기옥정(須奇屋町) 우편국 앞에서 황남옥 최상을 등 7~8 명의 광주고보생들과 마주쳐 옥신각신 실랑이를 벌이다가 형세가 불리해지자 광주역 쪽으로 도주하고 고보생들이 추격함.

▲오전 11시 10분, 수십명의 광주중학생들이 손에 야구방망이와 목검을 들고 유도선생 이진(伊田)의 인솔 하에 광주고보생 타도를 외치며 광주역으로 쇄도.

▲오전 11시 20분, 광주고보 통학생들이 광주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다가 추격하던 고보생들과 합류. 위기에 직면한 우리 학생들은 역 구내 한곳으로 모여 방어태세를 갖추는 한편 학교 기숙사에 알림.

▲오전 11시 30분, 급보에 접한 고보 기숙사 학생들, 야구방망이와 농구(農具) 등을 꺼내들고 함성을 지르면서 광주역으로 뛰어갔고, 뒤이어 광주농업학교 학생들도 달려와 합세함.

▲오전 11시 40분, 한·일 양측 학생들이 들고 온 연장 몽둥이를 휘두르고 돌맹이를 던져 투석전과 난투극을 전개하여 광주역 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됨. 일본인 학생들도 광주중에 연락해서 증원되었고 양측의 수는 각각 300여명에 이름.(동아일보 기사)

▲오전 11시 50분, 소식을 접한 광주경찰서 경찰과 기마경찰대, 소방대 등이 광주역에 들이닥침.

▲오전 11시 50분, 경찰은 광주중학교 길목인 담양가도에 강력한 제지선을 쳤으며,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광주여고보 학생들이 호빵과 물을 가져다 시위학생들에게 나누어 줌.

▲낮 12시경,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던 시위대는 동문다리에서 방향을 돌려 광주사범학교 쪽으로 행진. 학교당국의 저지를 받던 사범학교생들은 시위대가 당도하자 담을 뛰어넘고 교문을 무너뜨리며 합세함.

▲오전 12시 30분, 고보 졸업생 장재성이 한복차림으로 나타나 고보생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조선학생으로서 모든 것이 불리하므로 일단 학교로 돌아가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며 귀교를 종용.

▲오후 1시경, 학생들은 줄을 지어 학교로 돌아옴.

▲오후 1시 20분, 학교로 철수한 고보생들은 강당에 집합하여 5학년 반장 노병주(盧秉柱)의 사회로 사건경위 보고와 사후대책을 논의함.

▲오후 2시, 귀가를 명분으로 학생들은 8명씩 스크럼을 짜고 교문을 출발하고, 광농생 최태주의 연락으로 달려온 광주농업학교 학생들도 기다리고 있다가 시위대열에 합세.

▲오후 2시 20분, 시가지로 진출한 시위대, 중심가를 누비며 ‘조선독립만세’ ‘식민지노예교육을 철폐하라!’ ‘일본인학교 광주중학을 폐쇄하라!’ 등의 구호와 애국가 응원가 등을 부름. 시위가 계속되는 동안 연도의 일반시민이 합세함.

▲오후 2시 40분, 시위행진하는 동안에 광주도립병원 앞과 향사리(鄉社里) 소시장(小市場)부근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한 뒤 즉시 해산하고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행진을 계속함.

▲오후 2시 50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학생들은 손에 들고있던 연장을 버리고 경찰의 해산명령은 듣지 않은 채, 양림동쪽으로 뛰어감.

▲오후 3시 20분, 고보생들, 광주천변을 따라 학교로 귀교한 후 해산함.

▲오후 4시, 학생들의 귀가가 방면별로 집단으로 이루졌고, 통학생들은 기숙사생들과 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역까지 호송. 휴교 중 외출할 때는 5인이상 조를 짜서 행동하도록 했으며 비상연락망도 조직함.

▲오후 5시, 겁에 질린 당국은 광주고보, 광주농업학교, 광주여고보, 광주사범학교 등 한국인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일본인 학교인 광주중학교도 휴교시킴. 당시의 신문보도는 이날의 시위에 참가한 군중이 3만명에 이르렀다고 기록함.

●1929. 11. 04 광주역총돌사건이 있는 직후 일본인중학교의 학부형 대표들이 관계요로에 진정하여 이날의 사태에 대한 보복적인 강경책을 요구하는 한편, 불안하여 살 수가 없으니 군대를 주둔시켜 달라는 요구. 학교측, 주도

자로 지목한 학생을 무기정학 등 처벌에 착수. 경찰당국, 이날 오후 5시까지 광주중학생 도천모(渡川某) 외 7명과 고보생 20여명, 농업학교생 수명을 검속함. (1929. 12.28. 조선일보 호외 외)

▲오후 7시, 경찰, 학생들을 검거하기 시작함.

●1929. 11. 05 도내 각서(各署)의 응원을 구하여 경계를 한층 더 엄중히 하고 검사가 출장 취조함.

●1929. 11. 06 경찰 검속자 60여명으로 늘어남. 진상조사차 경성에서 온 조선학생회 학생과학연구회, 중앙청총(靑總) 등의 대표 3명도 검속됨. (1929. 12.28. 조선일보 호외 외)

●1929. 11. 07 학생전위동맹(學生前衛同盟), 부건 권유근 등 조사단을 광주에 파견, 진상조사를 함.

●1929. 11. 09 신간회, 7일 「광주학생사건조사위원회」 파견을 결의했고 9일 김병로 등 3인의 조사위원이 광주 현지에 옴. 조사단은 백정(白井) 광주 고보 교장과 좌등(佐藤) 광주중학교장을 찾아가 진상을 청취함.

●1929. 11. 09 목포공립상업학교생들, 광주시위 소식을 듣고 최창호, 이인형 등이 광주에 와 장재성을 만나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진상을 들음.

●1929. 11. 10 우리 학생 70여명을 검거 구속했다가 62명을 재판에 회부, 반면 일본인 학생은 겨우 7명을 연행하였다가 곧 석방.

#### 다) 11월 12일의 2차 시위

11월 3일의 학생시위사건은 다음날 각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서울에서 신간회와 각 사회단체에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대표를 파견하였다.

이즈음 광주 독서회 중앙본부 장재성을 비롯한 회원들은 보다 조직적이고 치밀한 2차 시위를 계획하여 11월 12일 시위를 벌인다. 그러나 그 후 일제의 조치는 가혹했다. 언론에게는 12월 말까지 보도를 금지하는 재갈을 물렸고, 학생시위 배후를 철저히 수사하여 성진회는 물론 각 학교의 독서회와 소년회 관련 학생들이 모두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2차 시위는 단순한 우발적인 가두투쟁을 넘어서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독립운동이라는 정치투쟁으로 그 방향을 명확히 하고, 대중투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 일지는 다음과 같다.

●1929. 11. 10 독서회 간부들, 당초 11일 시위를 결행하기로 했으나 11일 보다는 ‘광주장날’인 12일이 시위효과나 파급효과가 빠를 것이라는 의견이 나와 일정 변경.

●1929. 11. 10 이날 밤 장재성은 광주고보의 오쾌일, 이영범, 광주농업학교 김남철, 정욱, 광주사범학교 이신형, 황상남 등과 회합하고 다음날인 11일 시업(始業)시간을 기하여 세 학교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나 격문을 뿌리고 시위운동을 감행하기로 일단 합의.

●1929. 11. 11 광주시내 학교 휴교령 끝나고 이날부터 수업재개.

●1929. 11. 11 광주고보생 40명만 등교. 그러나 12일에는 전원 등교.

●1929. 11. 11 장재성, 4종의 격문 초안을 작성함. 다음은 유인물 내용.

- ①조선민중이여 꺾기하라!
- ②청년대중이여 죽음을 초월하고 싸우자!
- ③검거자를 즉각 석방하라!
- ④재향군인단의 비상소집에 절대 반대한다!
- ⑤경계망을 즉시 철폐하라!
- ⑥소방대·청년단을 즉각 해산하라!
- ⑦만행의 광주중학을 폐쇄하라!
- ⑧기성의 학부형 위원회를 분쇄하라!
- ⑨학부형대회를 소집하라!
- ⑩언론·집회·결사·출판의 자유를 획득하라!

용감하게 싸워라 학생대중이여!!! 우리의 슬로건 아래 꺾기하라! 우리의 승리는 오직 우리들의 단결과 희생적 투쟁에 있다!

- ①투쟁의 희생자를 우리 힘으로 탈환하자!
- ②검거자를 즉각 석방하라
- ③교내 경찰권 침입을 절대 방지하라
- ④수업료와 교우회비를 철폐하라
- ⑤교우회 자치권을 획득하자
- ⑥언론·집회·결사·출판의 자유를 획득하라
- ⑦직원회의에 학생대표를 참석시키자
- ⑧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를 확립하라
- ⑨식민지 노예교육제도를 철폐하라
- ⑩사회과학연구의 자유를 획득하라
- ⑪전국학생대표자회의를 개최하라

▲밤 8시, 오쾌일은 박기석 집에서 이형우와 함께 강민섭 김홍남 등의 협력을 얻어 광주여고보생 장매성이 흥학관에서 가져다준 등사판을 사용하여 인쇄물 약 2,000매를 인쇄함.

●11월 12일

▲오전 8시경, 오괘일이 인쇄한 격문이 광주 장날인 12일 김안진 강민섭 조길용에게 전달됨.

▲오전 8시 30분, 김안진, 격문 수백장을 등교 즉시 김삼석 김동섭 송만수 김홍남 등에게 배부함.

▲오전 9시, 첫시간 수업을 알리는 시작종이 울리자 광주고보 전교생은 교문쪽으로 집결하여 시위 책임자로 선정된 김향남이 외치는 “철창에서 신음하는 교우를 구하자!”는 구호에 따라 일제히 교문을 박차고 시가로 진출.

▲오전 9시, 광주농업학교도 아침 시업종을 신호로 시위대를 형성하여 격문을 뿌리며 광주형무소로 진격.

▲오전 9시 20분, 학생시위대, 목표인 광주형무소로 향하면서 가는 도중 광주여고보와 광주사범학교 앞에 이르러 시위에 합류하라고 외침. 그러나 두 학교가 사전에 철저히 봉쇄되어 합류하지 못함.

▲오전 9시 30분, 광주고보 시위대는 형무소로 돌진했으나 이미 경찰병력이 출동해 있어 대치함.

▲오전 9시 30분, 광주농업학교 시위대가 광주고보 부근까지 진출하였을 때 급히 출동한 왜경(倭警)에게 포위돼 저지당함.

▲오전 9시 50분, 출동한 경찰과 대치한 광주고보 시위대, 무력에 밀려 포위되는 처지에 놓였고 일부 학생들은 경찰에 강제로 연행되어 감.

▲오전 11시, 왜경, 학생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간부까지 무차별 검거 시작. 학생 180명, 민간인 100명 이상 검거하여 도청 앞 무덕관에 감금.

▲오전 12시, 이날 시위가 있은 후 광주고보는 물론 광주에 있는 한국인 중등학교는 모두 휴교령이 내려지고 무차별 검거가 시작됨.

●11월 13일

▲오후 9시, 광주경찰서는 비상소집을 하고 시내 각 중학교 생도와 청년 다수의 가택을 일제 수색한 후 여고보생 장매성과 김용호 외 2명의 청년을 검거하였으며 사범학교 기숙사를 수색하고 흥귀주 외 4명을 검거. 인근 각지에 총검거 선풍이 일어났다.(1929. 12. 28. 조선일보 호외 외)

●1930. 01. 08 광주고등보통학교, 이날부터 등교하였으나 제 3차 비밀계획이 발각되어 학교당국은 주모자 17명을 즉시 퇴학처분하고, 경찰이 총동원되어 검속에 나서자 광주시내는 또다시 엄중한 경계에 빠짐.

●1930. 01. 09 광주고보생, 2학기 시험이 시작되자 백지동맹(白紙同盟) 감행. 정세면, 손동출, 최영희 등 17명이 퇴학을 당함.

●1930. 01. 09 광주여고보생들도 “200명이 형무소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모두 백지동맹을 감행. (1930. 1. 11. 조선일보)



- 1930. 01. 15 광주고보생 계속 백지답안 제출로 3년생 이하 41명 퇴학, 244명 근신명령.
- 1930. 01. 15 광주여고보생 37명 백지답안 제출하여 근신명령. 광주학생 비밀결사사건에 관계된 광주여고보생 12명 중 10명 체포했지만 각 학교 모두 동요 없었음.
- 1930. 01. 16 광주고보 제 3차 시위계획이 발각되어 48명이 퇴학을 당함. 이 가운데는 구속학생들에게 사식(私食)을 넣어주기 위하여 연극공연 모금 등 운동을 전개하다 퇴학당하고 구속된 학생도 있었음. 이러한 학생들의 처벌은 광주여고보, 광주농업학교, 광주사범학교도 마찬가지.
- 1930. 01. 17 광주고보 2년생들이 18일을 기해 일제히 퇴학계를 제출하자고 모의.
- 1930. 01. 18 광주고보생 24명이 전교생의 퇴학계 제출을 권유하다가 검거되고 1년생 4명은 퇴학처분.
- 1930. 01. 29 치안유지법을 적용한 시위사건 관련자 예심이 종결되고 공판에 회부됨.(3개월만에) 그러나 보안법을 적용한 성진회, 독서회 관계사건은 7월 이후에야 예심이 끝남.
- 1930. 01. 31 광주수피아여학교, 정무총감 광주방문 기화로 대대적인 시위 일으키려다 사전에 발각되어 주모자 정옥순 등 검거되고 이날부터 무기휴교에 들어감.
- 1930. 02. 08 광주고보 송홍 선생, 광주고보 사퇴.(학생운동과 관련 강제퇴직). 20여년간 재직했던 교직을 떠나면서 시 한수를 남김.
- 1930. 02. 12 광주학생시위사건(치안유지법 위반) 관련자 49명에 대한 제 1회 공판이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방법원 형사 제 1호법정에서 개정. 구속자 188명 가운데 예심이 끝난 49명의 학생을 출정시켜 공판을 진행. 인정신문 후 공판을 끝냄.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에서 일어난 한·일 학생 충돌사건은 나흘 뒤 일어난 학생독립운동의 발단이 되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 나주역 충돌사건을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생겼다. 이것은 1959년 영화로 제작된 '이름없는 별들'에서 이를 강조하면서 인식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나주역 충돌사건도 발단이 되긴 했지만 광주학생독립운동 그 자체라고 할 수는 없다. 우연한 일이 전국으로 번지는 시위가 될 수는 없다. 사회운동은 사회현상을 인식하고, 각성하고, 철저히 준비했을 때 확산될 수 있는 것이지만 우연한 사건이 우연스럽게 전국으로 확산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독립운동의 '발단'과 '원인'은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

가 있다.

#### 4) 파급효과

##### 가) 전국에서 320개 학교 참여

1929년 11월 광주에서 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나자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항일의 봉화는 전국으로 파급되고, 만주 중국 등 외국에까지 메아리쳤다. 12월 28일 보도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은 광주소식으로 흥흥해졌다.

여기에 ‘광주에서 학생들이 수없이 많이 죽었다’는 유언비어가 전국은 물론 중국에까지 유포되었다. 실제로 상해에서 발간된 1930년 1월 27일자 독립전보(獨立戰報)는 ‘17,000명 투옥, 78명 영웅적 전사’ 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학생독립운동은 3단계로 나누어 전국에 확산되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제 1단계는 11월 중에 목포, 여수, 순천, 나주, 담양 등 도내 각 학교에서의 항일시위이다. 제 2단계는 12월에 전개된 서울의 학생독립운동이고, 제 3단계는 1월 중순부터 3월까지, 평양, 신의주, 함흥,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총궐기한 학생운동이다.

학생독립운동이 이렇게 전국에서 격렬하게 전개된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일제에 대한 민족감정의 폭발이다. 일제가 한반도에서 지배를 시작한 지 25년, 합병으로 식민통치를 해온지 20년으로 그동안 박해와 수탈이 극에 달했었다. 반면 우리 민족은 3·1운동 이후 신교육으로 눈을 떠 민족의식이 고양되었으며 독립의지가 총만하였다. 일제는 조선을 영구식민지화 하는데 교육목적을 맞춘 반면, 우리 학생들은 노예교육을 강요하는 현실에 분노하여 폭발 직전에 이르게 되었다.

둘째,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하여 노동조합의 주장이 일상화 되고 농민들의 소작쟁의가 끊이지 않을뿐 아니라 신간회, 근우회 등이 국민 계몽운동을 전개하여 사회 저변에 깨우친 국민이 늘어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또 사회주의운동을 독립운동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셋째, 광주에 성진회, 독서회, 소녀회처럼 전국의 각급 학교에 유사한 비밀결사가 조직되어 어떤 계기나 자극이 있으면 봉기할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넷째,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원인이 자기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한국학생을 몰아붙이고 가혹한 징벌로 보복함으로써 민족적 공분을 갖게 되었다. [한정일. 광주학생독립운동사.]

아쉬운 점은 성인들의 참여가 낮았다는 것이다. 학생독립운동이 이렇게 학생들 중심으로만 전개된 이유는 무엇때문이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당시의 대표적인 사회단체인 신간회가 분열되고, 사회주의 단체들이 대규모 검거사태로 궤멸된데다 농민·노동단체들 역시 일본경찰에 의해 철저히 감시당했기 때문이라는 게 학자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비록 ‘독립’은 성사시키지 못했으나 그 의기(義氣)는 전 세계에, 역사의 흐름을 넘어 영원히 남겨졌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 나) 1945년 해방때까지의 학생독립운동

1929년 이후 광주에서는 크고 작은 백지동맹, 일본인 교사 비판하기, 일본 국가 바꿔부르기, 몰래 조선어쓰기(1940년부터 일본어만 쓰게 하였음) 등 저항운동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교실마다 걸려있는 일장기 액자 뒤에 항일과 관련된 글을 쓰거나 훼손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보다 큰 대표적인 학생독립운동으로는 1943년 5월 20일 ‘제 2차 무등회 사건’을 들 수 있다. 지금은 거의 잊혀져 기억 속에서도 사라져 버렸지만 희생자 수로만 본다면 1929년 학생독립운동에 버금가는 피해를 냈다.

1929년 학생독립운동 이후 일제는 학생들을 소위 ‘황국신민화’ 하기 위해 온갖 간계를 다 써왔다. 한국사를 교육과정에서 제외시키면서 한국 역사를 왜곡해 민족정신을 말살하려 하는가 하면, 아예 한국의 고대사를 일본사에 껴 맞추려 했다.

일본은 1932년 3월 중국의 부의를 만주 황제로 하는 괴뢰정권을 세우고, 1937년 루거우차오(蘆溝橋)사건을 일으켜 본격적인 중국 침략에 들어갔다. 1941년 12월 8일에는 미국 진주만을 공격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을 시작했다.

그들은 이를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이라고 허울 좋은 선전을 하면서 교육현장에서는 신사참배 강요. 애국일 행사(1937년 8월 1일부터), 황국신민 서사(皇國臣民誓詞)와 흥아봉공일(興亞奉公日, 1939년 9월 1일), 대조봉재일(大詔奉載日, 매달 8일)이라 하여 학생들을 동원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학생들은 광주서중(1938년 광주고보의 교명 변경), 광주농업학교, 육고녀(광주여고보의 교명 변경)생 등을 주축으로 하는 비밀조직 ‘독서회’를 운영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들은 졸업 후에도 각자의 근무지에서 줄곧 서신왕래를 해 왔는데, 1937년 여름 전남경찰국 고등경찰과 사찰계에 적발되어 무려 51명이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후 독서회 활동은 더욱 은밀하게 유지되었는데 광주서중 학생들은 그 모

임의 이름을 ‘무등회’라고 하였다. 회원들은 졸업 후에도 후배들을 규합하여 조직을 유지해 왔는데 1943년 5월 20일 ①일본어 사용 반대 ②창씨개명 ③내선일체 ④일본상품 불매 ⑤한·일 차별교육 반대 ⑥조선독립 등을 ‘요구 및 실천사항’으로 정하고 동맹휴교와 시민들과 함께 시위를 전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전에 발각되어 많은 학생들이 경찰에 검거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검거된 학생이 100여명을 넘었고 각각 실형 및 퇴학을 당했다. 1년이 넘게 모진 고문 속에 미결로 옥살이를 하던 주동자들이 1944년 9월 18일에야 광주지방법원 공판을 통해 판결을 받았는데 11명이 형을 받았다. 또 기환도, 강한수, 주만우, 윤봉현 등이 고문으로 인해 숨지고 말았다.

학생독립운동으로 이처럼 큰 희생을 당했는데도 1942년에는 민족 언론이었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폐간된데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들도 모두 압수당해버려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 4) 학생독립운동의 희생자들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학생들의 숫자는 아직까지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남한에서 참여학교마저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여기에다 남북분단이라는 비극적 상황으로 북한의 참여학교와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학생독립운동에 궤기했던 전국의 학교 총수를 일본 경찰은 194개교, 보통학교 54, 중등학교 91, 전문학교 4개교이며 참가학생은 54,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했다. 일본측의 주장대로 따르다 하더라도 1929년 당시 보통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생수가 모두 518,000명이었기 때문에 전체 학생의 10분이 1이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 항일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주로 남녀 중등학교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조선인 중등학생이라면 대부분이 참가, 혹은 동조했다고 할 수 있다.

학생독립운동으로 경찰에게 검거된 사람으로부터 검사 송치, 즉결, 훈계방면 등을 받은 사람은 모두 5,571명이었다. 이 가운데 학생은 4,565명이었다. 학생들 가운데는 퇴학 533명, 유시퇴학 49명, 무기정학 2,330명으로 모두 2,912명이 학교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했으며, 나머지는 경찰로부터 처벌을 당했다. 퇴학생들은 전라남도가 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경기도 97명 평안남도 67명 순이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형을 받은 사람은 335명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10대가 113명, 20대 214명, 30대 이상 8명으로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주도 했

음을 알 수 있다.(신주백, 「광주학생운동의 주체」, 『광주학생운동연구』, 2000. 아세아문화사.에서 재인용. 조선총독부 경무국 극비문서 통계)

광주에서는 학생·일반 180여명이 실형(實刑)을 받았고, 반수이상이 형사적으로나 학교규칙에 의해 처벌을 당했다. 광주고보의 경우 경찰에 검속되지 않은 학생은 몇 사람 되지 않아 거의가 희생자가 됐다.

하지만 이렇게 통계에 나타난 숫자 외에도 수많은 학생들이 갖가지 불이익을 당하면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병을 얻어 두문불출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그 숭고한 독립운동에서 이름을 남기지 못한 채 ‘이름없는 별’로 사라지게 되었다.

## 5) 과제

### 가) 눈물어린 기념일 변천사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수많은 젊은 학생들이 참여한 식민지시대의 대표적인 독립운동이었는데도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이를 기념하는 일은 우여곡절을 거쳐야만 했다. 해방 후부터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전국적인 기념행사로 치러졌지만 1970년대 유신독재가 강화되면서 아예 국가기념일에서 제외됐고, 1984년 다시 부활했다고는 하지만 ‘어린이날’과 비슷한 성격의 ‘학생의 날’이 되어버렸다. 그동안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김대중 대통령이 광주일고 교정이 있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에 참배하거나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2006년 그동안의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라고 불렀던 명칭을 바꿔 ‘광주’가 빠진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부르게 되고 기념식도 교육부가 해마다 광역자치단체를 돌아가면서 주관하기로 했으나 해방 후부터 1960년대까지의 성대한 기념식으로 돌아가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2019년부터 교육부와 보훈처가 광주에서 성대히 기념식을 갖게 되었다.

### 나) 참여학교들과 함께 하는 기념일을 만들자.

2006년 국회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이 학생운동이 광주만의 운동이 아니라 전국적인 운동이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또 그 기념도 함께 하자는 것 때문이었다.

남한에서만도 100여개가 넘는 학교가 이 학생운동에 참여했다. 그러나 광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 학생들은 자신이 교육받은 학교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졌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해서는 역사 속에 계속 남아있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 참여학교들도 기념식을 갖고, 표지물을 만들고, 문화예술 창작품을 만들고, 마라톤·걷기대회도 개최하는 한편 참여학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단법인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전국 네트워크화를 위해 2017년 1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화정동)에서 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이 비전선포식은 △전국 참여학교 네트워크화를 위한 전국단위의 사단법인 설립 취지문 낭독과 △5·18시인인 김준태 시인이 작사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김종율씨가 작곡한 ‘우리 햇불되리라’라는 기념곡을 선보이기도 했다.

학생독립운동 해설사 양성과정도 광주에서부터 이 날을 잊지 않고 그 정신을 후손에게 계승 시키는 작업을 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에 보다 많은 사업과 이벤트를 접목하여 젊은 학생들도 동참하여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다) 전국화·국제화 필요

오래 전 일본 외무성의 젊은 공무원을 개인적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으로 안내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일본인은 광주의 5·18묘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이런 학생탑과 학생독립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제는 일본 ‘문화의 날’이 된 명치왕 생일이 우리 ‘개천절’과 같은 날이어서 광주에서 민족적 갈등으로 충돌이 일어나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는 설명을 듣고서야 조금 이해하는 듯하다.

국내에서도 젊은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우리의 역사인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적어도 호남에, 광주에 ‘호남의병 - 광주학생독립운동 - 5·18광주민중항쟁’이라는 역사적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광주정신’의 도시, 의향(義鄉)이라고 불리게 됐으며, 예술의 창작 소재가 무궁무진한 도시라는 것을 알리는 일부부터 벌여야 한다.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으로 이룬 기념비적 운동에 대해 그대로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소멸되고 말 것이다. 우리가 더욱 노력해서 그 역사적 의미를 전국에, 세계에 알려야 한다.

기념일로만 알리려 해서는 한계가 있다. 영화, 뮤지컬, 무용 등 문화예술로 창작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고, 멋진 스토리텔링을 구현하는 작업을 함께 벌여야 전국화·국제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6) 글을 마치며

광주시 북구 루운동 144번지에 서 있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의 전면 중앙 석판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가로로 새겨져 있다.

‘우리는 피끓는 학생이다. 다만 바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해방 이후 광주에서 호남신문 사장을 지냈던 이은상씨가 지은 이 글귀는 1929년 당시 독립운동에 나선 학생들의 정신이었고, 1954년, 전 국민의 성금으로 탑이 세워진 이후의 학생들의 정신적 방향까지 제시한 글귀이다.

광주가 독립운동에 이어 1970년대부터 전개된 민주화운동, 그리고 21세기에 더디게 전개되고 있는 통일운동에 이르기까지 3대 운동의 구심점이 된 것은 92년 전의 순수한 구국정신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운동이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미주에까지 번져나갔고, 제국주의 지배를 받아 온 식민지 민족들에게도 ‘정신’으로 남아 큰 희망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제3강좌

# 광주와 반독재 민주화운동

노 영 기

(조선대학교 교수)

# 1960-70년대 민주화운동



## 4.19혁명

- ◆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선거 - 관권을 동원한 부정선거.  
경찰이 야당의 선거유세 방해, 언론의 취재 방해, 3인조, 5인조 선거, 사전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등등의 온갖 부정선거. 이기붕의 부통령 당선을 목표로 부정선거.
- ◆ 민주당 전남도당, 금남로에서 '국 민주주의' 만장과 관을 들고 부정선거. 경찰의 제지, 고등학생들은 4월 11일 항의시위. 4월 19일 고등학생의 항의시위와 경찰의 발포(금남로 3가)

## 4월혁명 이후와 5.16 쿠데타

-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 하야 선언. 12년간 계속되던 이승만독재 붕괴. 4.19혁명 이후 '과거사 청산' 운동이 전개. 함평에서는 한국전쟁 전후한 시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 민주주의를 꽃 피우고 평화통일을 이루려는 통일운동 전개.
-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 발생. 박정희-김종필 등이 주축인 쿠데타세력이 무력을 동원해 장면정권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
- 4.19혁명 이후 자유와 민주주의, 과거사 청산, 평화통일 -> 물거품.
- 전남에서도 제31사단(사단장 : 최주중)이 쿠데타에 참여.







## 박정희정권의 이념

- ◆ 반공이 극시 -> 각종 공안사건의 조작(동백림사건 - 이영로, 윤이상, 천상병). -> 1986년 신민당 의원 유성환 의원 구속(국가보안법).
- ◆ '잘살아 보세!' 를 내세우며 '조국근대화' 를 달성하고 보릿고개를 넘긴 시대? -> 왜 농민들은 고향을 등지고, 전태일은 자신의 몸을 불살랐나?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경상수지가 흑자를 달성한 연도는?
- ◆ 민족적 민주주의 : 한국 실정의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절대 충성.
- ◆ 중요이데올로기(?) 강조, 화랑도, 자주국방론(?) <-> 닉슨독트린과 불안한 한미관계(주한미군 철수? 인권외교의 한계).

## 박정희 시대

- ◆ 군사문화 : 상명하복(까라면 까!)이 있고 토론이 없는 문화.
- ◆ 군부엘리트 : 쿠데타 이후 군복을 벗고 장차관, 의원, 국영기업체 등등에 새로운 지배계층, 유신사무관, 민을 건 고향 후배들(아나회).
- ◆ 돌격 앞으로! = 수출만이 살 길, 수출입국. 베트남의 KAL노동자들은?
- ◆ 정치 : 항명. 김성근과 김재호, 김영옥 실종, 장준하(사상계), 최종길
- ◆ 문화: 감시와 통제 및 금지, 외일화. 미니스케트와 장발, 통키타 단속, 건전가요(나외 조곡), 막걸리 반공법, 긴급조치의 시대





## 박정희정권기 민주화운동

- 광주 · 전남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중심지.
- 1960-70년대 민주화운동의 중심지 - 서민오, 김대중 등
- 굴욕적인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투쟁 - 정동년 등
- 최초의 반유신 유인물인 '함성' 지 - 김남주, 이강 등
- 반유신 전국적 학생조직인 민청학련 - 윤안봉, 김상운 등
- 농민들의 생존권투쟁인 함평고구마투쟁 - 서경석, 노금노 등
- 우리의 교육지표 - 송기숙, 명노근 등
- 들불야학 - 박기순, 윤상원, 김영철, 박용준 등

## 1960년대 한반도

- ◆ 북한 : 베트남전의 '제2전선' , 미국은 베트남전에 강력하게 대처, 북한의 강경파가 득세하고 국방과 경제의 병진노선 채택.
- ◆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특수부대 침투(김신조).
- ◆ 1. 22 푸에블로사건의 발생.
- ◆ 10월 30일~11월 2일 : 울진삼척지구 무장간첩 120명 침투.
- ◆ 또다른 근대 : 병영국가, 향토예비군 창설, 주민등록증, 교련...

## 삼선개헌과 반대운동

- ◆ 1969년 6. 8총선 : 공화 129, 신민당 45, 기타 1. 관권선거, 무더기표, 매표(막걸리와 고무신), 위협투표 등
- ◆ 6월 9일 연세대생들의 시위를 시작으로 13일에는 고려대 등 서울 8개 대학, 15일 전국 21개 고교와 5개 대학 시위 -> 6월 14일 시내 11개 대학 호교령, 16일 전국 28개 대학과 219개 고교에 호교령, 7월 3일 서울 모든 고교 호교, 7월 4일 대학 방학 -> 동백림과 통역당





#### “우리의 교육지표” 요약

민주주의 교육이 실현되지 않은 애국애족 교육은 진정한 인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주주의 실천이 결핍한 채 민주주의보다 반공만을 일제로 내세우는 다 공산주의 일에 패배한 역사를 우리는 잊고 있지 않는가?

(중략)

다음과 같은 우리의 교육지표에 참여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1. 물질보다 사상을 존중하는 교육. 진실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이 체제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교육의 참 한장인 우리의 일상생활과 학문이 아울러 인간화되고 민주화되어야 한다.
2. 학생이 인간화서 민주화의 첫걸음으로 교육자 자신이 인간적 탐심과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적 정열로써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배우자 한다.
3. 진실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대한 우리의 감성을 배려하여, 그러한 감성에 따른 대학인의 최성에 참여한다.
4. 3·1 정신과 4·19 정신을 충실히 계승전파하여 가문의 숙원인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민족역량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한다.

## 경제개발의 성과와 한계

- ◆ **상업차관 도입 - > 특혜에 의존한 기업의 부실**
- ◆ **경제성장률 : 7.6%(1970) - 8.6%(1971) - 5.1%(1972) - 1972년 8.3. 조치 = ‘경제적 유신’**
- ◆ **1960-75년까지 약 700만의 농촌인구가 도시 유입**
- ◆ **전태일 분신(70.11.13), 급격한 도시화 = 와우아파트 붕괴, 광주대단지(71.8)**



## 유신체제의 특징

- ◆ 안 사람의 헌법, 파시즘 <-> 김대중남치(1973. 8. 8. 동경)
- ◆ 10월 2일 전국 대학가에서 반유신 시위 -> 구속과 제적 -> 지식인들의 민주회복 요구 -> 12. 7. 구속 학생 석방 발표
- ◆ 12. 24. 장준하의 100만인헌법개정청원운동과 긴조시대
- ◆ 1974. 1. 7. 이희승, 김광섭, 이오철, 백낙청 61명 개헌청원 서명 -> 문인간첩단

## 긴급조치

- ◆ 1974. 1. 8. 전남대생 1,000명의 개헌요구 시위
- ◆ 긴급조치 제1호 : 헌법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금지,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 15년 이하의 징역형, 긴급조치 제1호 위반자의 처벌 위한 비상근법회의 설치를 규정한 긴급조치 2호 발동 -> 1월 15일 장준하, 백기완 구속. 2월 1일 비상보통근법회의에서 15년의 징역형(8. 20. 대법원 확정, 4. 9. 장준하 영집행정지, 백병원).
- ◆ 속결과 경찰제 판결.

##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사건

- ◆ 1974. 4. 3. 각 대학의 대규모 시위에서 ‘전국민주청년 학생총연맹’ 의 요인물 -> 4. 3. 22:00 긴급조치 제4호.
- ◆ 4. 25.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 사건 배후로 인혁당재건위, 총 1,204명 조사, 745명 훈방. 253명 비상근법회의, 180명 기소. 7월 13일 이철, 유인태, 여정남, 김병근, 나병식, 김지아, 이현배 등 7명 사형/7월 11일은 ‘인혁당 재건 위’ 서도원, 도예종 등 7명 사형.

<https://www.youtube.com/watch?v=Q7NJGbCE8jc>

## 긴급조치의 시대

- ◆ 1974. 4. 8. 약 2,000명의 고대생이 ‘석탑선언문’ 을 뿌리며 시위 -> 긴급조치 7호 : 고려대 위수령
- ◆ 긴급조치 제9호 : 1975. 5. 13. 1979. 12. 8. 해제. 집회, 시위는 물론, 신문, 방송, 문서 등의 표현물에 의한 유신헌법의 부정, 반대, 왜곡, 비방, 개정 및 폐기 주장, 청원, 선전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 이 조치에 의한 명령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광주전남의 민주화운동 - 반유신

- ◆ 민청학련 : 윤한봉(전남북책임자) · 김상운(광주전남 책임자)을 비롯한 전남대 및 조선대 학생들도 반유신시위를 계획하던 도중 구속
- ◆ 국내외 비판 -> 1975년 2월 15일 관련자들을 전원 석방
- ◆ 배후로 조작된 인혁당 재건위 사영 : 1974년 4월 8일 집행(8명).
- ◆ 광주 · 전남 출신들은 출소 후 곧바로 '전남민주회복구속자협의회' 를 결성하여 민주화운동 지속.
- ◆ 윤한봉의 연대사회문화연구소, 김상운의 녹두서점.

## 광주전남의 민주화운동 - 우리의 교육지표

- ◆ 1978년 6월 27일 전남대 교수 11명은 '우리의 교육지표' 발표.
- ◆ '국민교육헌장=교육칙어' . 국가주의 비판, '인간화 교육, 민주주의에 기초한 교육의 실현, 교육의 독립성 보장, 3·1정신과 4·19정신의 계승을 통한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교육의 실현' 요구.
- ◆ 교수들 중정 전남지부 -> 6월 29일 전남대, 7월 3일 조선대 학생시위. -> 학생지도관실 : 군경, 중정의 상주 및 사찰, 탄압.
- ◆ 국가주의 교육의 비판 + 학원 감시와 통제 등을 비판 = 반유신운동



## 광주전남의 민주화운동 - 반유신

- ◆ 긴급조치 9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구속.
- ◆ 국제사면위원회 전남지부(지부장:이성악 장로) 결성
- ◆ 천주교의 김성용 . 조철현 . 정규완 신부
- ◆ 개신교의 윤기석 . 강신석 . 방길호 . 문정식 목사, 조아라 . 이성악 장로
- ◆ 법조계의 홍남순 . 이기홍 변호사
- ◆ 교육지표 관련 해직 교수들이 연대해 반유신운동을 전개.

## 광주전남의 민주화운동 - 반유신 조직과 활동

- ◆ 가톨릭농민회, 노동운동, 독두서점, '전남구속청년협의회', 독서그룹.
- ◆ 윤안봉은 현대문화연구소 - 양서조합, 민주청년협의회, 송백회, 각종 노동야학과 광대(놀이패), 삼봉조합.
- ◆ 극단 '광대' 는 1980년 1월 전남대 '민속문화연구회' + '극회' 중심으로 조선대 탈춤반과 전남대 '극악반' 일부가 결합.
- ◆ 1980년 3월 15일 농촌문제를 다룬 '돼지풀이' 시작. 민속극 공연
- ◆ 5월 18일 직전 공연 준비 도중 5.18 항쟁에 적극 참여.



## 광주전남의 민주화운동 - 들불야학, 백제야학

- ◆ 1978년 교육지표 사건 후 노동자로 취업한 박기순을 비롯한 학생들이 참여한 노동야학. 김영철 합류 -> 주민운동과 결합. 1978년 겨울(12월)~다음해 2월까지 전남대와 조선대 학생들이 '광주공단 실태조사반'을 구성해 민중들의 삶을 조사.
- ◆ 사랑의 고실(검정고시야학), 은 1979년 가을 졸업생 여성 노동자의 산재 -> 학생운동권, YWCA, NCC, 현대문화연구소의 도움 -> 노동야학인 '백제야학'으로 전환.

## 무등산타잔

- 제3공화국 시기의 산업화 - 농촌 몰락. 이촌향도와 도시 빈민
- 무등산 타잔(박흥숙) - 1977년 4월 20일 광주시 윤림동 무등산 중턱의 무어가 빈민촌인 이른바 '무당촌'의 무어가 토담집을 강제 철거하던 공무원들이 한 철거민 청년과 싸움이 붙어 철거반원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
- 도시빈민의 주거 문제와 1977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전개된 도시미관 정비사업 등의 문제가 폭발한 사건





## 유신의 그림자, 5.18...

- ◆ 유신: 통일 위안 '국력배양', '국민총화' . 안국적 민주주의(?)
- ◆ 언론탄압, 필화, 금지곡, 단발령과 미니스커트, 애국조회,
- ◆ 신군부: 11개(4년제 육사), 아나외, 경호실, 보안사, 특전사.
- ◆ 공수부대: 미군 작전지원권 미관, 정권의 특수부대, 부마양쟁만?
- ◆ 「부마지역 학생소요사태 교훈」. “초동단계에 신속 진압. 굳이 진압을 위해 투입되면 인명을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고 무자비할 정도로 타격” ... -> 5.18
- ◆ <https://www.youtube.com/watch?v=mxM8eEDkxzw>





**특강2**

# **호남정신과 호남의 전통문화**

**천 득 염**

(한국학호남진흥원장)

# 호남정신과 호남의 전통문화1)

천 득 염(한국학호남진흥원)

## 1. 전라도 천년, 호남의 전통문화와 문화콘텐츠

- 현대사회에 들어 범인류적 차원의 세계화(Globalization)가 큰 추세를 이룬지 이미 아주 오래고, 이러한 세계화에 대응하는 지방화(Localization)를 지나 이를 포괄하는 世方化(Glocalization) 혹은 地世化(Loca-balization)라는 어휘가 어색하지 않게 되었다. 더욱이 이제는 각 문화와 국가간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민족적 자존의 경쟁과 더불어 문화적 이해충돌의 시기가 도래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 "한국인" "한국 전통문화" 라는 의미 제고와 역할을 부각함과 아울러 한국민들의 자각에 기인한 한민족의 문화 주창이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범세계적인 민족자각이 강한 때에 역설적으로 지역의 문화연구가 강조되고 요구되기도 한다. 따라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문화학 연구'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이는 지역문화가 지역에서 생성되고 향유되지만 지역이라는 인식의 경계를 넘나들어 인류문명을 이루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즉 근자에는 脫國家, 脫地域이 지역문화(학)의 관건이며 요체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를 위해서는 인류의 공생과 공존, 문화의 교류와 통섭, 문화의 기본에 대한 천착,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이 필요하다는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의 문화가 어찌 우리 울타리에만 머무를 수 있겠는가?

이미 시공간과 사고의 경계를 넘은지 오래다. 지역이라는 근본의 천착 없이 세계를 말할 수 없다. 결국 세계화의 동력을 민족적 전통인 지역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미래사회의 화두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문화, 환경과 생태, 복지 등 새로운 어



그림 28. 한류와 문화적 인자

1) 이 글은 그간 많은 문화 관련 강의를 하면서 호남의 전통문화의 속성과 이를 통한 문화 콘텐츠의 구축이라는 개념으로 쓴 내용이다.

젠다를 통한 발전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이다. 이 한 가운데에 전통과 문화라는 단어가 이제는 어색하지 않은 인자들로 자리하고 있다. 즉 새로운 개발동력을 어디에서 찾고 지속해 나가느냐가 큰 고민거리라 할 것이다. 그동안 고속성장의 배경에는 땀 흘려 일한 수많은 사람들이 음지에서 있었다.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이루어왔던 엄청난 성과는 이제는 새로운 성장선도산업을 도출해 내지 않으면 우리의 장래를 장담할 수 없는 우울한 미래를 예견하게 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모두 새로운 성장축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에너지, 정보산업과 문화콘텐츠산업, 식량 자원, 해양자원 등 새로운 장에서 무언가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다.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은 높은 교육열과 이에 따른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고도의 첨단정보를 통하여 새로운 문화적 자산을 창출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영화 한편이 수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을 보고 감탄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능력이 없는가? 근자에는 한류의 열풍이 온 지구를 뜨겁게 하고 있고, 특히 근래에는 K-Pop 열풍을 직접 느끼며 보고 있다.

- 그러나 100년전 일본의 대중미술도 유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현재는 영향력을 잃고 있다. 지난 10-11일(현지시간) 파리에서 한국의 SM 소속 가수들이 공연을 했다. 원래 1회로 잡혀있었는데 지난달 프랑스 팬들이 루브르 앞에서 시위까지 하면서 추가 공연을 요구하는 바람에 2회가 된 것이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미 우리의 문화가 가장 선호하는 장르가 되고 있다한다.



그림 29. 일본의 浮世繪

- 유럽의 한류(韓流)가 이제 잔물결 수준을 넘어섰다는 신호가 아니며 아시아권에서는 이미 이러한 흔적을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이미 韓流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한참이나 잘 흘러가고 있다고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100여 년 전 유럽을 뒤덮었던 거대한 파도, 자포니즘(Japonism)만큼은 아니다. 우리의 한류와 비슷한 일류(日流)가 19세기 후반

부터 20세기 초까지 유럽의 중심지인 프랑스와 네델란드에서 인상파 화가들을 비롯해 수많은 미술가와 문인이 빠져들었다. 지금 유럽에 상륙한 한류의 선봉에 K-Pop과 TV 드라마가 있다면 당시 자포니즘의 선두에는 에도(도쿄)의 대중미술 우키요에

(浮世繪)가 있었다. 네덜란드 태생의 후기 인상파 거장 빈센트 반 고흐는 프랑스에 와서 자포니즘 열풍에 휩싸였고, 히로시게의 풍경 판화에 반한 나머지 유화로 모사(模寫)하기도 했다. 그 모사화를 보면 히로시게의 그림 비례를 똑같이 따랐고 캔버스 양쪽 남은 공간에 한자까지 정성껏 그려(쓴 것이 아니라) 넣었다! 그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본 작가들의 작품을 지배하는 그 극도의 명쾌함을 보면 그들이 부럽더구나. (중략) 그들은 마치 조끼 단추 채우는 것만큼이나 수월하게 잘 고른 몇 개의 선만으로 형태를 그려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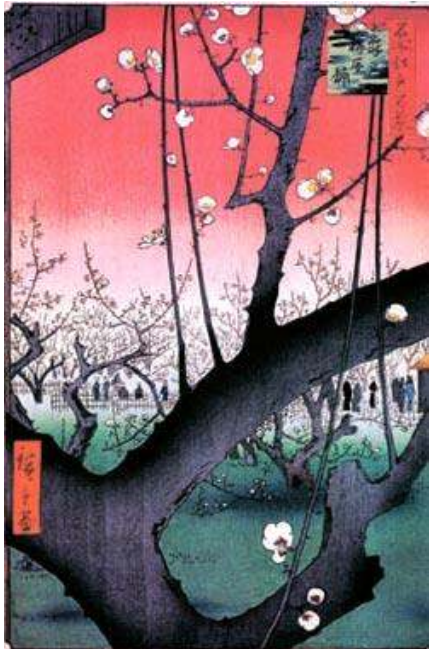


그림2) 가메이도의 매화 정원 - 명소에도 100경 중에서(1857), 우타가와히로시게(1797~1858) 작, 목판화.

나 수월하게 잘 고른 몇 개의 선만으로 형태를 그려내지.”

고흐가 이렇게 우키요에의 선과 여백을 연구한 끝에 그린 작품이 오늘날 많은 사랑을 받는 '아몬드 꽃'이다. 짙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힘 있고 멋들어지게 구부러진 가지들과 하얗게 빛나는 꽃들만 있는 구도가 전통적인 서양화와는 전혀 다르다. 이것은 조카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림이었다. 동생 테오가 아들을 낳아 고흐의 이름을 따서 빈센트라고 이름 지었다고 알려오자 고흐는 기뻐하며 남부 프랑스에서 가장 일찍 피는 봄꽃인 아몬드 꽃을 그려 보냈던 것이다. 이 그림은 도상에서 동양의 매화도를 닮은 데다가 새봄의 전령이자 시련 속에 피어나는 희망의 상징이라는 점에서도 매화도를 닮았다.

- 이처럼 우키요에로부터 시작된 자포니즘은 일본의 다른 미술과 문학, 전반적인 미학과 철학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발전했다. 여기에서 주지할 점은 그 기폭제 우키요에가 앞서 말한 것처럼 전적으로 일본 전통적인 것이 아니며 또 세속적인 대중미술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럽의 예술가들은 우키요에가 신선하면서도 너무 낯설어 공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니 서구문화의 영향을 받은 대중예술 K-Pop이 한류의 선봉에 서는 것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앞으로의 관건은 그것이 한순간의 소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구인들에게 영감을 주어 그에 영향 받은 문화가 탄생하게 하고 그것이 한국의 더 전통적인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중앙일보, 2011,06,09일자에서 인용)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연예인들의 모습과 노래, 영화, 음식, 옷, 한옥에서 한국성과 한국문화를 찾고 이들을 통하여 우리의 문화를 세계로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멸치육수 푸아그라’가 프랑스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런던에선 제육볶음 버거가 인기라고 한다. 韓食이 유럽의 일상 먹거리가 되어 가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대견하다.



그림 3) 꽃피는 매화나무(히로시게를 따라서) (1887), 고희(1853~1890) 작, 캔버스에 유채, 반 고희 박물관, 암스테르담.

콩푸팬더, 굿다이노, 슈렉에서는 할리우드도 놀란 한인들의 파워가 대단하다. 창의성과 열정으로 가득한 ‘한류’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심장 할리우드에서도 확인된다. 배우, 감독, 스태프, 작가와 프로듀서 혹은 방송사나 영화사의 주요 포스트에 이르기까지 한인들의 전방위 진출이 눈길을 끈다.<sup>2)</sup>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렇게 다양한 장르에서 나타난 기예적 끼에 비하여 특히 인문학적 흔적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얼과 민족의 혼이 내재되어 있는 참 한류는 무언가 하는 탐색이 부족한 것 같다. 아직 우리의 문학이 어떤 위치에 있고 순수예술이 어떠한 수준에 자리 하는

가 냉철하게 자문해보아야 한다.



그림 32. 멸치육수 푸아그라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창의적 인재에 의해 기획·창작된 콘텐츠를 사업화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제공하는 산업이 문화산업이다. 제조업이 대량의 제품을 더 빠르게 생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문화산업은 문화자원과 신기술 및 다른 산업과의 융합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에는 이러한 콘텐츠를 기획·창작하는데 중요한 소재인 역사·인물·전통문화·문화경관·설화·문화유산 등 다양한 문화자원이 존재하기에, 이를 활용한 콘텐츠 사업화는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한국의 균형 발전에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

2) 중앙일보, 2016, 7,6. ‘멸치육수 푸아그라 프랑스를 사로잡다’



가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제 콘텐츠 산업 발전에 지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각 지역이 다양한 문화 자원을 우수한 콘텐츠로 개발하고, 다른 지역과의 협업 및 다른 산업과의 융합, 그리고 우수한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위해 지속 성장이 가능한 지역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의 성장뿐 아니라 창조경제시대에 부합하는 국가적 성장과 우리의 문화정체성 확립, 우리의 문화가치를 세계인들과 교류하고 나누는 토대가 될 것이다.(김시범, 안동대학교수)

## 2. 남도인의 심성과 전통문화의 특징

### 2.1 호남인의 심성

#### 가. 호남의 지리적 특징과 자연환경

한 지역의 지리적 특징은 그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질과 수준을 결정해 주는 숙명적인 요소로 인식돼 왔다. 지리적 환경은 그 지역 주민에게 사회·문화·경제적 수준은 물론 정치적 결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다.

湖南은 동으로는 小白산맥의 분수령을 경계로 영남지역과 접하며 서쪽으로는 황해를 건너 중국과 접하고 있다. 남으로는 다도해에 연해 태평양과 연결되고 북으로는 錦江하류와 車嶺산맥의 소구릉에 의해 충청도와 접해 북부경계만이 자연적 장애가 없이 한반도의 북부와 연결된다. 호남과 대청관계에 있는 영남지방은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의 울타리로 거의 완벽하게 타지역과 경계를 이뤄 구분되지만, 호남은 충청도와 자연·인문현상의 유사성이 많으며 역사적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호남지역은 30%가 경지로 평야가 넓고 기후가 온난해 농업의 적지로 그 명성이 높았다. 또한 북부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해로를 통해 직접 중국문화를 받아들여 고유문화를 창조했고 그 문화를 일본에 전수하기도 했던 곳이다.

전체적으로 호남의 지리적 위치는 지역방어나 외침이 유리한 반면 문화적·산업적 자극이 타지역에 비해 적어 주민의 대부분이 보수적이고 변화에 민감하지 못했다. 20세기 들어와 각 지역의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호남이 가장 느린 변화를 보인 것은 호남이 갖는 지리적 위치의 영향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끝으로 호남의 공간적 특성을 후손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길 것인가하는 문제는 오늘날의 湖南人이 고민해야하는 당면과제다.<sup>3)</sup>

#### 나. 풍요로운 자연환경과 고대문화

전라도하면 먹을 것이 많고 살기좋은 땅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우선 기후가 그렇고 넓은 평야와 이를 살찌우는 강·하천의 발달, 여기에 대하여 넓은 바다와 개펄의 해산자원은 이 지방인들의 삶에 여유를 부여하였다.

3) 신귀현, 호남의 지리적 특징과 자연환경, 제5회 향토문화연구 심포지움, 1993.

물론 이러한 자연환경과 풍요로운 물산은 이를 탐내고 빼앗으려는 외적인 힘에 의해 표적이 되었음은 우리는 잘 기억한다. 그러나 아직 정복전쟁과 정치지배구조가 확립되지 않았던 선사-고대사회에서 이러한 환경과 풍족한 물산은 그대로 이 고장사람들의 것이었으며, 오랜기간을 경과하면서 이로 말미암은 인성을 배태시켰다고도 할 수 있다. 「순한」사람들, 「정」이 많은 사람들, 자연의 섭리에 가깝게 살아온 이 호남인의 천성은 바로 이같은 자연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실제 선사시대의 이 지방에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그 문화적 깊이가 있는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식묘의 분포나 그들의 군집상은 바로 그러한 예증일 것이며, 이러한 문화의 배경에서 馬韓勢力도 생겨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호남의 역사(문화)기원은 백제보다는 오히려 그에 의해 일부가 훼손된 이들 「마한문화」에서 찾아져야 한다.

삼한 중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앞서 있던 마한은 삼한의 마루(宗) 즉 으뜸이었으며, 세력규모로도 마한에 소속된 부족국가가 54개국이었다고 하고, 음력의 규모도 큰 경우는 1만여호, 작은 경우도 수천여호에 달한다고 하였음은 그것을 말해준다. 한국고대사에서 삼한문화는 북방의 고조선 중심 문화와는 약간 성격을 달리하였고 북방민족문화의 영향보다는 한민족의 고유한 전통을 형성해가면서 바다를 통한 중국과의 교류를 모색하는 단계까지 성장하고 있었다. 농경을 주된 생업의 수단으로 하던 이들의 문화는 오랜 기간동안 독자성을 유지하여 왔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 우리 민족문화의 뿌리가 되었던 것이며, 전라도지역은 바로 이러한 마한문화의 중요한 하나의 거점이었던 것이다.<sup>4)</sup>

#### 다. 호남의 民俗과 정신문화

인간의 인성을 파악하는 동양의 관점은 맹자의 四端論을 근간으로 한다. 맹자가 말한 仁·義·禮·智는 개인적 차원의 심성연구지만 사회를 하나의 인격적 개체로 환원시켜 보면 한 사회의 집단적 인성, 즉 호남인의 집단인성의 해석이 가능하다.

호남인의 인성은 포용성, 의기, 순후성으로 대별된다. 이러한 호남인의 보듬는 인성은 장한 기질, 숭한 심성을 맹자의 사단론에 비취볼 때 호남인은 인·의·예를 실천하는 인격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호남인에게서 맹자의 4덕중 智에 해당하는 인성을 찾기는 어렵다.

이러한 전제로부터 편의상 智에 대한 반성과 義에 대한 반성 두가지의 비판적 이해가 도출 될 수 있다.

인성의 전체성 측면에서 맹자가 거론했던 인·의·예·지중 호남인은 지를 갖추지 못했다. 맹자는 「是非之心 智之端」이라 했다. 시시비비는 인·의·예를 판단하고 실천하는 동력이다. 판단과 실천이 강조되는 유교적 윤리관은 그만큼 지를 강조하는 사상

4) 이해준, 전남지역의 역사·문화적성격, 건축역사연구 6집, 1994. 12.

이다.

흔히 호남인은 감정적이라는 말을 듣는다. 지적판단에 따른 실천보다는 생각에 앞서 행동부터 한다는 것이며 정에 지배되기 쉽다는 말이다. 균제되지 않는 힘이란 그것이 크면 클수록 위험하다. 호남인의 장점인 인·의·예가 진정한 장점이 되기 위해서는 지의 균제력이 뒷받침돼야 한다.<sup>5)</sup>

## 라. 호남의 사상과 意識의 형성

한국민족문화는 삼국시대에 그 특성이 갖춰져 통일신라와 고려를 거치면서 오늘 날에 이르는 문화적 전통을 이뤘다. 호남의 문화적 특징이나 사상, 의식을 연구할 때 백제문화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유때문이다.

강을 따라 평야지대로 이동하는 호남지역에서는 문화의 전파와 교류가 빈번하다. 호남으로 내려오는 이주민들은 큰 세력집단을 형성했고 우수한 기술문화를 가지고 등장했기때문에 토착사회를 선도개발시켰다. 대륙으로부터 선진문화로 정착시키고 확산하는 과정에서 호남지역은 개방적·진취적 의식을 성립시켰다.

고려시대 호남지역 사상형성에는 신라말 고려초 선종의 성립과 조계종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일상생활의 자기수양을 강조한 이러한 사상이 호남지역 의식형성을 크게 좌우했다.

또 실천수행을 중시하면서 교종사상을 융합하려 했던 교종의 실천윤리도 호남지역의식에 잠재하면서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조선시대 호남지역의 사상적 특징은 유학·성리학 성격과 연관지어 추출될 수 있다. 국가위기상황마다 표출됐던 호남유림의 節義·救國정신은 조선후기 실학성립과 구한말 척사정신으로까지 이어져 있다. 호남실학은 당대 사회내부의 모순을 이끌어 내면서 개혁방향을 제시했고 한말 호남유학자들은 결의정신을 바탕으로 척사위정을 선도했다. 호남인의 의식속에 살아숨쉬는 節義·救國정신은 우리사회 동량으로서의 역할을 다해갈 것이다.<sup>6)</sup>

## 마. 풍요로운 자연환경과 고대문화

전라도하면 먹을 것이 많고 살기좋은 땅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우선 기후가 그렇고 넓은 평야와 이를 살찌우는 강·하천의 발달, 여기에 대하여 넓은 바다와 개펄의 해산자원은 이 지방인들의 삶에 여유를 부여하였다.

물론 이러한 자연환경과 풍요로운 물산은 이를 탐내고 빼앗으려는 외적인 힘에 의해 표적이 되도록 하였음을 우리는 잘 기억한다. 그러나 아직 정복전쟁과 정치지배

5) 나경수, 호남의 민속과 정신문화, 제5회 향토문화연구 심포지움, 호남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성격, 1993.

6) 김두진, 호남의 사상과 의식의 형성, 제5회 향토문화연구 심포지움, 호남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성격, 1993.



구조가 확립되지 않았던 선사-고대사회에서 이러한 환경과 풍족한 물산은 그대로 이 고장사람들의 것이었으며, 오랜기간을 경과하면서 이로 말미암은 인성을 배태시켰다고도 할 수 있다. 「순한」사람들, 「정」이 많은 사람들, 자연의 섭리에 가깝게 살아온 이 호남인의 천성은 바로 이같은 자연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실제 선사시대의 이 지방에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그 문화적 깊이가 있는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석묘의 분포나 그들의 군집상은 바로 그러한 예증일 것이며, 이러한 문화의 배경에서 馬韓勢力도 생겨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호남의 역사(문화)기원은 백제보다는 오히려 그에 의해 일부가 훼손된 이들 「마한문화」에서 찾아져야 한다.

삼한 중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앞서 있던 마한은 삼한의 마루(宗) 즉 으뜸이었으며, 세력규모로도 마한에 소속된 부족국가가 54개국이었다고 하고, 음악의 규모도 큰 경우는 1만여호, 작은 경우도 수천여호에 달한다고 하였음은 그것을 말해준다. 한국고대사에서 삼한문화는 북방의 고조선 중심 문화와는 약간 성격을 달리하였고 북방민족문화의 영향보다는 한민족의 고유한 전통을 형성해가면서 바다를 통한 중국과의 교류를 모색하는 단계까지 성장하고 있었다. 농경을 주된 생업의 수단으로 하던 이들의 문화는 오랜 기간동안 독자성을 유지하여 왔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 우리 민족문화의 뿌리가 되었던 것이며, 전라도지역은 바로 이러한 마한문화의 중요한 하나의 거점이었던 것이다.

#### **바. 바닷길과 전남문화**

전남문화의 근본바탕은 百濟가 아니라 百濟文化와 대립하면서 더 깊은 토착적 배경을 가졌던 馬韓의 文化였다. 사실상, 이 지역의 고대문화는 바닷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발전하였다. 이 바닷길은 흡사 오늘날의 철도교통이나 고속도로망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을 만큼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특징적인 몇사레만 예시하더라도 서남해 연안의 수많은 지석묘, 영산강유역의 옹관묘는 한국의 선사문화를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유적이고, 완도의 청해진 유적과 강진의 청자도요지, 고려시기의 선종사찰들, 삼별초의 진도항쟁 등은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대변하는 핵심사실들인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왜란의 격전지와 각 지역의 군사방위시설, 특히 '섬의 나라' 전남의 서남해안 섬지역에 남아 전하는 다양한 민속문화들은 그야말로 민족문화의 살아있는 박물관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내륙의 깊숙한 골짜기와 평야지대보다 바다는 고대인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문화전파루트였고, 서남해와 인접된 수많은 섬들을 연결하는 바닷길, 그리고 이에 연결되면서 내륙의 혈맥이 되어주는 영산강.섬진강.탐진강의 연안수로가

발달한 지역이다. 이 바닷길과 연안수로는 전남지역의 고대문화가 성장하는 기초배경이 되어 실제로 백제시대까지만 하여도 이 지역의 많은 郡縣의 행정중심지가 바닷길과 연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지금의 신안군지역과 진도군지역에 3개의 군현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은 바로 고대문화가 바닷길과 연관되어 있었음을 잘 반증한다. 통일신라시대의 일이긴 하지만 중국에서 출발하여 일본으로 귀국하던 圓仁이라는 일본승려가 기록한 순례여행기에 의하면 그는 지금의 신안지역 섬에서 신라의 서울 경주에서 발생한 쿠데타 소식을 전해듣고 있었다. 요즈음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통일신라시대 수많은 도당유학생들이 출국과 입국한 곳이 바로 이 전라도 연해였고 그들이 이용한 길이 바로 이 서남해안을 경유하는 바닷길이었다. 백제시대나 그 이전의 사실은 기록상 확인이 되지않고 있으나, 통일신라시대 이후 애로는 우리의 몫으로 고려시대까지 장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완도출신 장보고의 해상활동은 바로 그 이전시대에 이루어진 바닷길 이용의 경험을 되살린 것이었다.

후백제의 강점도 결국 이 바닷길을 장악하고 있었던 데서 그 충분한 배경을 읽을 수가 있고, 그 때문에 왕건은 호남장악의 제일보로 진도와 고이도(현재의 신안군 압해면)를 연결하는 海路를 차단하면서 나주 공방전을 치루고자 하였던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바닷길을 이용한 호남문화의 근본줄기였으며, 타지역에 결코 뒤질 수 없는 독자성과 능력을 지녔던 시기가 분명 존재했었다고 믿는다. 고려태조 왕건의 호남차대가 기록된 <훈요십조>의 진위문재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같은 바닷길과 연관된 호남의 문화배경을 염두에 둘 때 왕건의 호남차대는 그것이 일방적인 무시이거나 소외로 인식되기에 앞서 얼마만큼 세력이 크고 독자적이었으면 그런 방식으로 이 지역세력을 제어하려고 했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될 때 이 지역의 역사적 성격이나 전통은 원래의 모습을 되찾게 되리라 믿는다.

한국문화사상에서 백제문화가 개방적이었다고 지목되는 것과 고려의 문화가 그 다양함과 개방성의 측면에서 국제적인 수준에 있었다고 평가된다.

#### **사. 중앙 지배권력과 상층과 갈등**

그러나 풍부한 경제력과 물산을 지닌 이 지역에서 이같은 해로의 발달은 다소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피해와 침탈의 표적이 되게 한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다. 나당연합군에 의한 백제의 멸망이나 청해진 대사 장보고의 정치적 불운에 부수된 이 지역민에 대한 경주중심세력의 반감, 후삼국의 쟁쟁과정에서 왕건의 고려정부에 의해 부분적으로 정치적 소외의 대상이 되었던 사실 등은 그 예가 될 것이다.

고려태조 왕건이 그의 후손들에게 내렸다는 <훈요십조> 중 호남차대의 기록도

이러한 대립상의 흔적이다. 훈요십조는 지금까지도 왕왕 호남인의 자학과 지역차별 의식의 효시로 거론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훈요십조의 내용은 고려초의 상황을 반영하는 자료이기 보다 그 후대에 와서 전제한 양대정치세력 간의 갈등 내용을 살피는데 보다 유용한 자료가 됨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태조 왕건이 후백제세력의 강한 반발에 대하여 위기감까지 느꼈던 인물임이 분명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는 이들 막강한 후백제세력을 회유·포섭하는데 주력한 사람이었다. 그는 나주출신 장화왕후 오씨의 태생을 제2대 혜종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영암출신의 최지몽이나 도선, 영광출신의 김심언, 나주의 오희 집안 등을 막 후세력으로 등용하는 등 일방적인 전라도출신 인물 차대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고려왕실의 중심세력은 경주계열 인물들에 의해 장악되어 갔으며, 그러한 변화를 수긍하지 않았던 전라도세력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훈요십조가 현종-문종대에 부각된 것이었음을 우리는 주시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전라세력과 경주세력의 대립갈등의 산물인 이 훈요십조가 중앙정부에서 정치적 주도권 싸움에 정략적으로 이용되었던 것이었다. 오히려 조선시대보다도 고려시대에 중앙정계에서 괄목할 활동을 한 전라도 인물들이 많았다는 점이나, 특히 전라도 만덕산 백련결사, 조계산 수선사 등 불교사상계를 지도한 걸물들을 성장케한 지역이었던 점들은 그 같은 사정을 증거하는 일면일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고려정부의 정치적 실권이 신라계열의 문신세력에 의해 장악되면서 점차 중앙정치무대에서 도태되어간 전라도세력은 무신집권길글 맞으면서 다시 한번 정계 진출의 계기를 맞게 된다.

물론 무신집권기 이전에도 중앙정계에 영광김씨, 장흥임씨, 남평문씨 등의 전라도 세력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무신집권기가 되면서 새로운 친무신정권계열의 전라도세력이 등장하여 그 경제적·사상적인 배경으로서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우선 최씨정권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던 서남해안 및 도서지역의 유력토호세력이 등장하여 뒤의 삼별초 항쟁을 끝까지 지원하는 세력이 되는가 하면 불교사상적으로도 송광사의 정혜결사와 같은 친무신정권적인 성향을 갖는 집단도 생성되었다.

한편 고려말 왜구에 의한 전라도 연해안의 침탈상은 이 지역의 사회전반적인 구조재편을 야기시켰다. 왜구침탈로 인해 20여군데나 되는 전라연해지역의 고을터가 자리를 옮기게 되며 아예 고을 자체가 없어진 곳도 10여곳이나 되었던 것은 그 같은 피해상을 잘 증명해준다. 이러한 여말선초의 혼란과 행정공백은 이 지역의 주도 세력들을 전면적으로 교체·배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많은 경우 전라지역의 조선초기 주도세력집단이 고려말기 이래 토착적인 세력에 뿌리하지 않은 새로운 이주·정착집단이었다는 점에서도 밝혀진다.

호남지역에 정착하여 성장한 여러세력 중에서 조선개국기에는 극히 일부만이 중앙정계에 진출하였다는 사실과, 이와 함께 이 시기에는 많은 이주성씨와 인물들이

새롭게 전라도 지역에 터를 잡았음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 후자에 속하는 조선전기 전라도 이주세력들 중에서 절의와 사림정신으로 무장된 일군의 유학자들이 배출되고 있었음을 기억하여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들 조선 전기의 사림들에 의해 혹은 그 계통을 잇는 인물들에게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호남 정신의 근본줄기라고 이야기하는 충절과 저항과 비판의 실천력을 갖춘 이 지역의 대표적인 지식인들이 배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7)</sup>

## 2.2 호남전통문화의 특징

이제까지 호남문화나 南道文化의 성격, 그리고 호남인들의 심성을 다룬 글들은 많이 있었다. 이중에는 특정분야의 문화상을 설명하여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일부 편향적인 강조점이 부각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호남문화의 본질을 流配文化라는 관점에서 보고 恨으로 얼룩진 시각으로 이해하는 저항일변도의 논리 같은 예들은 그러한 것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소 편향된 논리를 바로 잡고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전남지역의 역사, 문화적 성격을 규명한 논거들을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이을호선생은 "南道文化 概論"이란 글에서, 호남지방은 선사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흘러 내려오는 역사의 변천과정에 있어서 많은 지역적 독자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호남은 한국문화 조성의 一要因으로서 독자적 성격을 가진 하나의 문화권이란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이병도선생은 "지리, 역사상으로 본 호남"이란 글에서 호남일대의 풍족한 생산력과 교통의 편리는 歷朝의 재정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한 바 컸으며, 古來로 불의와 부정에 항거하는 정신이 강하여 救國匡正에 공헌한 바 적지 아니하였다고 호남의 문화적 특성을 말하였다.

또 오종일교수는 "湖南學序說"이란 글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호남은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양을 바탕으로 성장한 온후한 민심과 그를 상징하는 문화가 있었다. 백제시대에 있어서는 일찍이 항해술이 발달하여 중국대륙과의 교역은 물론 일본문화의 관계에 있어서도 근원에 있어서 그 원류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조선조의 사림의식이나 주자학의 발전은 호남인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많으며, 조선조의 실학이 성장하여 완성된 곳 또한 호남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문학 예술은 물론 판소리나 남도창 역시 호남만이 지니는 고유성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국가가 위난을 당했을 때 구국의 충절을 부르짖고 구국전선에 남 먼저 뛰어들어 의병활동의 온상이요 중심을 이룬 곳도 호남이었다."

"만약 호남이 없다면 국가도 없다"라는 충무공의 유명한 말처럼 국가가 누란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전라도의 의로운 정신은 더욱 빛을 발했다. 호남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창을 손에 들고 전쟁터로 나아갔다. 고경명, 김덕령으로 대표되

7)이해준, 전남지역의 역사·문화적성격, 건축사연구 제6집, 1994년 12월.

는 의병장들은 국란의 위기에서 나라를 지키려고 초개같이 목숨을 버렸다.

또한 호남문화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지춘상교수는 호남문화의 특성을 포괄적 의미로 구분하여 藝術性, 風流性, 民衆性 등으로 대별하였다. 또한 지춘상교수는 호남인의 인성을 포용성, 의기, 순후성이라 하였다.

무어라 해도 호남은 자타가 공인하는 藝鄉이다. 따라서 예술성에 대해서는 새삼 논의할 필요가 없고 풍류성 역시 생활의 여유를 향유하는 바탕에서 길러진 문화적 현상으로서 호남문화에서 두루 확인되는 바다. 민중성이란 역사적인 조건이 배태시켜 놓은 문화적 특질로서 오히려 공시적인 여러 현상을 통해서조차 드러나고 있는 예이다.

문화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자연적 요소와 역사적 요소, 그리고 사회적 조건 등이다. 이들 중에서 가장 기층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적 조건과 역사적 조건이 이율배반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곳 호남이라는 것이 지춘상교수의 지적이다. 즉 다른 어느 곳보다도 살기 좋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진 것에 반하여 역사적으로는 백제에 의한 마한의 망국, 신라에 의한 백제의 멸망, 왕건에 의한 견훤의 몰락과 고려왕조의 건립, 그리고 계속되는 고려 왕건의 훈요십조와 조선시대 가림주구의 온상으로 억압받고 피해를 입어 왔던 사실을 대비시킨 것이다.

오래 전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타지방사람들이 전남지방을 인식할 때 "민주화의 고장"이라고 보기보다 "藝鄉"이라고 부르는 것에 훨씬 높은 응답분포를 보였다. 또한 전남의 발전방향에 대하여서도 문화유산개발을 통한 문화관광지역으로 발전이 공장유치를 통한 공업지역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 이처럼 우리 지방에 대한 이미지는 예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장차 이 지역발전을 위하여서는 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발전과 미래로 지속가능하며 환경친화적인 산업발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전남지방에는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자긍심을 높여주는 어떠한 문화유적이 있는가? 이들은 미래사회를 위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 첫째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들 수 있겠다.** 전남지방은 기후가 평균14.2도로 따듯하고 넓은 토지가 비옥하여 일찍부터 농경문화가 발달하였으니 우리나라의 주된 穀倉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바다에 접하여 전국에서 가장 긴 해안선(6,032km, 전국의 47%)과 가장 많은 섬(1,954개, 전국의 62%)을 가지고 있는 해양자원왕국이다. 갯벌은 세계5대 갯벌로 전국의 40%에 해당하는 1,017평방킬로미터에 해당한다.

수려한 해안의 아름다움과 아직은 그다지 훼손되지 않은 다도해의 무궁무진한 해



그림 33 많은 섬은 남도를 살찌운다



그림 34 남도문화의 모태 갯벌

양자원들, 풍요로운 남도문화의 모태적 태생인 넓은 들녘의 젓줄 영산강, 산세가 아름다운 지리산과 월출산, 단풍으로 물들은 내장산, 불교유적이 가득한 조계산, 가장 물이 맑다는 섬진강, 청정한 바다 속 깊이를 즐길 수 있는 흥도와 백도, 완도의 명사십리, 남도 맛의 원천으로 넓게 펼쳐진 갯벌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특히 최근에 발굴된 1억년전 지구의 신비를 알 수 있는 해남의 공룡화석지, 수백미터 깊이까지 이어지는 무등산의 柱狀 절리대도 지질학적 보고이다.

이처럼 깨끗한 공기, 온화한 기후, 오염되지 않은 땅, 넓고 풍요로운 생명의 원천인 자연자산을 가지고 있어 스트레스 인지율이 전국최저이고 신체활동은 전국 최고, 고혈압의사진단율은 최저를 나타낸

다. 그래서 국민행복지수가 전국 1위이다.

- **둘째는 고대문화유적이다.** 이 지방은 구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았고 역사적으로 馬韓과 百濟의 옛터로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신라에 의한 통일,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나뉠대로의 정체성을 지니면서도 통합적인 성격을 지니는 남도문화적인 성격을 이루었다. 특히 육로를 통하지 않고 바닷길을 이용하여 중국의 선진문화를 가장 먼저 받아들였으며 일본에 문화를 전파하였다. 즉 서남해안의 바



그림 35 영암과 나주지역의 고분

닷길과 내륙지방의 강줄기를 따라 오르내리는 길은 전남지방의 고대문화가 성장하는 배경이자 중국과의 문화교류, 일본으로 향한 문화전파의 루트였다.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수만 기에 달하는 고인돌, 영산강 유역의 거대한 웅관묘, 선사시대인들의 다양한 住居址, 광주 신창동유적을 비롯한 쌀농사 稻作문화의 옛 흔적, 산성과 읍성을 비롯한 해안지방에 까지 건축된 수 없이 많은 옛 성터, 백제와 마한의 고분 등은 우리나라의 선사문화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귀중한 유적이다. 또한 일본



그림 36 고분에서 발굴된 금동관

흔적을 볼 수 있다.

과 고대사적인 논쟁이 되고 있는 전방후원형의 고분 역시 귀중한 유산이다.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농사 공동체는 협동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를 낳게 하였다. 함께 하여야만 가능한 여러 가지 과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도작문화의 특성이기도 하다. 무거운 돌로 만드는 고인돌, 큰 옹관묘, 거대한 묘, 성곽유적 등에서도 이러한

**- 셋째는 불교문화유적이다.** 전남지방에 불교가 도입된 것은 타지방에 비하여 다소 늦었으나 후대에 들어서서는 오히려 더 성하였다. 최근에 백제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불교유물들이 발견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통일신라 이후의 것들이다. 그러나 심산유곡에 자리 잡은 천년고찰들은 수많은 고승대덕들을 배출한 부처님의 도량으로 손색이 없는 빼어난 것들이다. 승보사찰인 송광사, 통일신라의 유물로 가득한 화엄사, 태고종의 宗刹인 선암사, 통일신라 때 아홉 山門중의 하나인 가지산문의 보림사와 동리산문의 태안사, 백련결사의 만덕사, 천불천탑의 운주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통일신라시대 이후 전남지역에는 불교가 융성했다. 백제와 신라 때에 걸쳐 많은 절과 불탑이 세워졌는데, 그 중심은 조계산의 송광사와 선암사, 대둔산의 대흥사, 지리산의 화엄사, 무등산의 증심사 들이다.



그림 37 천년고찰 송광사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한 서산대사가 죽기 직전에 대흥사에 가사와 바리때를 전하여 보관하게 하였거니와 나중에는 이 절에 초의선사가 자리 잡음으로써 저마다 불도의 맥을 잇게 하여 선풍이 면면히 이어져 왔다.

신라의 중인 의상이 태어난 뒤에 선종을 중심으로 한 전통이 이곳의 불교에 이어졌고, 고려에 들어와 풍수지리설로 유명했던 영암 출신 중 도선에 의해 이곳 불교는 더 탄탄해졌다. 조선 왕조에 들어와 불교가 비록 핍박을 받아 산속으로 숨어들었으나 이 도에는

**- 넷째는 선비문화와 절의 정신이다.** 이를 유교문화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토



양이 결국은 의향으로서 의미를 갖게 하였다. 모든 지방의 治所에는 향교가 있었고 명문대가 사대부집에는 서원과 사우, 서당, 정자를 세우고 그곳에서 시를 짓고 담론하고 교류하였다. 이러한 건물은 대개의 경우 경승지에 위치하였으며 주변의 자연과 園林에 둘러싸여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였다. 무등산과 담양의 경계인 원효계곡에는 수 없이 많은 정자와 원림이 들어서 있다. 우리나라 어디에도 이처럼 누정 문화가 발달한 곳은 없다.

그 곳에서 조선시대 선비들은 속세의 명리를 버리고 그들의 이상향을 꿈꾸었을 것이고 신선과 같은 道家的 삶을 살았을 것이다.

백제 때의 학자 왕 인은 영암 사람으로 유교 경전을 중심으로 한 많은 책을 일본에 전해 주고 또 그들을 교화시켜 일본의 개명에 기여하였다. 고려에는 선종 중심의 불교가 성했으며 유교는 그다지 전파되지 못하였다. 조선 왕조에 들어와서 다른



그림 38 교육의 장, 나주향교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지방 유학은 서원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대원군이 서원을 철폐시킨 뒤에는 포충사와 필암서원 만이 명맥을 유지하였다.

조선 왕조 후기에 현실개혁을 제창하여 일어난 실학에도 이곳 학자들은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17세기에 광주 사람인 정두원이 중국에서 자명종과 세계 지도를 얻어와 서양의 문물을 소개하였으며, 장흥 사람인 위백규는 과학과 기계에 대한 이론과 같은 이 지방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현실 개혁안을 내놓았다. 또 유학자이며 정치가이며 문인으로서 유명한 정철과 윤선도는 저마다 「사미인곡」과 「오우가」를 남겨 국문학의 보배가 되게 하였다. 다산 정약용 역시 전라도 땅 강진 다산초당에서 20년 가까이 머물면서 목민심서 등 불후의 명작들을 남겼다.

‘至治主義’로 왕도 정치의 기본을 삼아야 한다는 이론으로 새 바람을 일으키다



그림 39 선비들의 공간, 보성 열화정

1519년에 화순군 능주에 귀양 와서 죽은 조광조의 학풍은 양팽손과 양산보 등 이 지방 선비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쳤다. 또한 기묘사화로 응교 벼슬을 하던 서울의 기준이 조광조와 더불어 귀양가 함경북도 온성에서 죽는 변을 당하자 그의 형, 기진은 남쪽으로 피하여 광산군 임곡면으로 몸을 숨겼다.

이러한 기진의 아들이 기대승인데 그는



학문에 전념하여 퇴계 이황과 '사단칠정론'을 벌여 성리학을 한층 진보시켰다. 기대승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뒷날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공리공론만을 일삼던 조정관리들과는 달리 충의와 절의를 위해 의병을 일으키고 목숨 바쳐 실천적으로 행동했다.

국가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전라도의 의로운 절의정신은 더욱 빛을 발하였다. 1908년 전라도 의병들은 왜군과의 교전횟수와 의병들의 참전수에서 전국대비 25%를 차지했으며 1909년에는 무려 60%가 전라도 의병들의 몫이었다는 통계도 있다. 거북선 제작의 주역 나대용장군이나 의병장으로서 고경명, 박광옥, 최경희 등과함께 의병을 일으켰고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김천일장군도 나주출신이다. 이러한 절의정신이 동학농민혁명과 광주학생운동, 5월민중항쟁으로 이어져 한민족의 정신적 근간이 된 것이다.



그림 40 협동체 축제, 고싸움놀이

이 곳 - 따위의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다. 죽은 이의 넋을 극락으로 이끌어 가는 싯김굿이 많은 것은 전라남도 토박이들의 조상과 친척에 대한 풍부한 인정을 말해 준다.



그림 41 함께 하는 유희, 강강술래

가 생겨난 곳도 전라남도이다. 또한 들노래뿐만 아니라 강강술래와 같이 소리와 춤

- 다섯째는 민속문화이다. 줄다리기와 강강술래, 고싸움, 싯김굿과 당굿, 장승제, 진도를 비롯한 섬 지방에서 나타난 각종 민속은 우리민족의 면면한 삶의 생생한 흔적을 보여주는 토속적인 민속문화의 보고이다.

집안이 잘 되기를 비는 집굿에는, 정초에 집안이 태평하기를 비는 도신굿, 새집 짓고 터 올리는 성주굿, 그 밖에 지왕맞

마을굿으로는 농악이 풍성하게 연주되는 당산굿, 두레를 차릴 때에 하는 대동굿, 다리 놓은 때에 하는 다리굿, 당을 새로 지을 때에 하는 당굿, 장승을 세울 때에 하는 장승굿, 뱃사람들이 바다의 화평을 비는 용왕재, 바다의 풍성을 비는 갯제 따위가 있는데, 농악을 주로 하는 당산굿이 마을 굿의 주류를 이룬다. 마을 굿의 역동적인 표현으로 줄다리가 발달하였고 줄다리의 변형인 고싸움놀이가

과 놀이가 함께 어우러지는 놀이를 낸 고장이기도 하다.

- **여섯째는 예향이라는 애칭을 갖게 하는 다양한 예술적 소양이다.** 음식 맛이 좋고 인심이 후하며 사람들이 멋을 알고 풍류를 즐길 줄 아니 예향이라 할 만 하다. 넓은 대지에서 생산되는 풍요로운 농산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각박함을 잊고 풍류를 즐길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서편제로 유명한 판소리와 육자배기, 신명나는 농악과 농요, 보통사람이면 칠 줄 아는 난초 등의 수목화와 서예 등은 우리지방 사람들이 빼어난 예술적 감각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2 기념비적 윤두서초상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문인화가인 학포 양평손과 정암 조광조의 만남, 불후의 명작 자화상을 남긴 공재 윤두서를 비롯하여 소치, 미산, 남농 許氏三代로 이어지는 남종화의 화맥은 남도의 멋을 표현하는데 손색이 없다. 이 들과 교류를 하였던 초의선사, 후학이며 해남 윤씨의 외손이었던 다산, 다소 떨어진 곳에서 유사한 예술활동과 농민운동을 하였던 의제 허백련 등을 함께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그들의 활동공간이었던 윤림산방과 다산초당, 무등산의 춘설헌 등도 운치를 더한다. 또한 오지호로 비롯되는 서양화단 역시 풍요롭고 따사로운 南道性을 지닌 회화를 대표하고 있다.

화가에 못지않게 우리지방에는 글씨를 잘 쓰는 사람도 많다. 조그마한 다방에만 가도 글씨와 그림이 안 걸려 있는 곳이 없다. 또한 구수한 사투리와 걸쭉한 언사를 가득이 그의 작품에 나타낸 문학작가 들이 많이 태어난 곳이기도 한다. 이 작가들의 작품에는 조선시대 남도의 명류시인인 윤선도와 송순, 김인후, 임제, 정철 등의 얼이 살아 있는 탓인지 모른다.

남도의 문화적 속성을 결정짓는 단어는 결국 예향이라는 의미일 만큼 남도인의 피에는 예술가적 맥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술가적 기질은 어디에서 나올까? 슬픔과 노란에서 비롯된 한일까? 아님 여유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즐거움일까?

- **일곱째는 전라도 특유의 감칠맛 나고 풍부한 음식이다.** 도서지방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젓갈, 천일염, 간장과 된장, 고추장을 소재로 만들어진 풍부한 음식문화는 이



그림 43 소치의 일속산방도

농산물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또한 근자에 새롭게 만들어진 여기저기서 만들어진 트솜과 떡갈비, 대통밥 등 다양한 퓨전형의 음식은 한류의 바탕에 남도성을 가미한 귀한 자산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전라도의 멋과 맛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는 풍요와 질곡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恒産이 있어야 恒心이 있듯이 여유가 있어야 멋이 나오는 것이다. 제대로 된 가락이라도 할려면 논밭깨나



그림 44 맛과 멋이 가득한 전라도 음식

지방 사람들의 풍요로움과 넘쳐흐르는 정을 느끼게 한다. 다양한 젓갈로 담근 김치를 보면 전남지방의 음식문화를 알 수 있다. 동해의 깊고 맑은 바다의 물고기보다는 서해의 갯벌 주위에서 잡은 고기가 더 맛있다 한다.

신안 앞 바다의 홍어, 법성포의 굴비, 무안의 세발낙지, 무안의 밤 고구마, 해남의 물 고구마(근자에는 밤고구마), 무등산 수박, 김 등 각종 해산물이나

농산물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또한 근자에 새롭게 만들어진 여기저기서 만들어진 트솜과 떡갈비, 대통밥 등 다양한 퓨전형의 음식은 한류의 바탕에 남도성을 가미한 귀한 자산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전라도의 멋과 맛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는 풍요와 질곡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恒産이 있어야 恒心이 있듯이 여유가 있어야 멋이 나오는 것이다. 제대로 된 가락이라도 할려면 논밭깨나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양쪽의 극단은 서로 만난다고 한다. 멋은 너무나 슬픈 恨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여유에서 나오기도 한다. 恨을 분출한 소리와 춤사위, 붓끝으로 표현되는 담채의 미, 시간을 체념한 기다림의 情恨, 이러한 것들이 멋으로 나타나고 이를 가리켜 藝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한스러운 심성이 풍류로 표출되어 예술로 승화된 것이다.

유홍준교수는 전라도의 문화를 소외, 아픔과 저항, 항쟁, 그리고 한의 역사적 산물로 표현함으로 한의 문화담론을 확산시켰다. “거기에는 뜻 있게 살다간 사람들의 살을 베는 듯한 아픔과 그 아픔 속에 키워낸 진주 같은 문화유산이 있고, 저항과 항쟁과 유배의 땅에 서려있는 역사의 채취가 살아 있으며, 이름 없는 도공, 이름 없는 농투성이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곳곳한 애잔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향토의 흙 내음이 있으니.....”

그렇다면 정말 동의 할 수 없는 유교수의 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南道人들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아픔보다는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는 여유를 모르는

가? 슬픔 이전에 즐거움과 여유가 있지 않을까? 저항과 항쟁보다는 대의를 위하는  
보다 큰 뜻으로 줄곧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멋과 맛을 알고 즐기지 않았을  
까?

- 그 외에도 일본에 문화를 전한 영암의 왕인박사 유적, 통일신라시대 바다를 제  
패한 장보고와 완도의 청해진유적, 지리적 인자를 신앙화 시킨 영암의 도선국가, 강  
진의 고려청자 도요지, 진도의 삼별초 항쟁지, 최근 명량으로 더욱 유명해진 명량과  
충무공 이순신의 활약, 수군과 승병 또는 의병들의 항쟁유적, 茶聖이라 지칭되는 무  
안의 초의선사를 비롯한 차 문화, 담양과 무등산 주변의 시가문화권과 원림문화, 고  
산 윤선도와 관련된 연동과 보길도유적, 11년간의 적거생활 다산 정약용의 다산초  
당, 정약전의 자산어보와 흑산도 등 가히 전남은 전통문화의 보고인 셈이다. 특히  
근래에는 웰빙과 힐링, 슬로우시티와 슬로우푸드 등 새로운 문화의 패러다임을 대  
응하는 가장 적절한 공간이 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비매품>

**2021 광주시민대학 민주시민교육**

(역사로 만나는 정의로운 광주정신과 민주 시민의식) **자료집**

지은이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펴낸이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사장 김덕진

펴낸일 . 2021. 5. 17.

인 쇄 . 밝은인쇄복사(062-524-7671)

※ 이 자료집은

**2021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